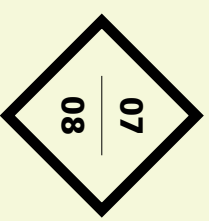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TWO CHAIRS

JULY+AUGUST
2026 vol.79



우리은행 퇴직연금으로!

퇴직은
우아하게

연금
우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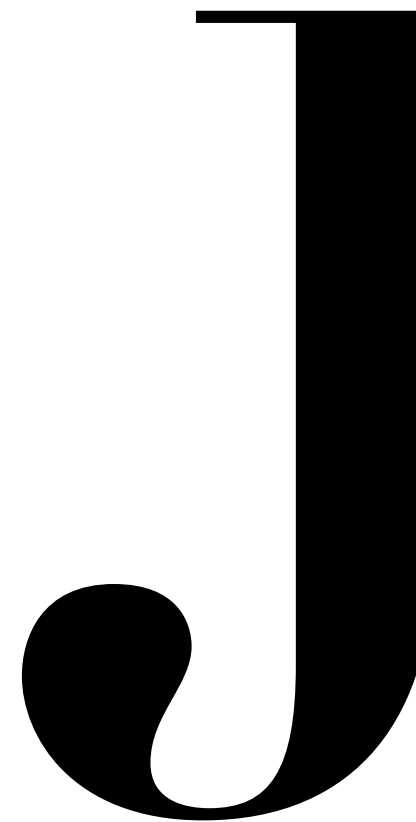
우리나라 우리은행

비대면 가입 시 IRP 수수료 0원 | 587종 이상의 엄선한 투자상품 보유

영상광고 바로보기 ※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하여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펀드 운용시 운용금액에 대한 펀드보수 별도 부과 ※ ETF 183종, 펀드 404종 '25.9월말 기준, 대면/비대면 클래스 함께 IRP 유의사항 *DC/IRP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과 대비하여 별도 보호상품을 합산 보호됩니다. *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투자 대상 판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기)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0원입니다.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타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 해지 시 잔액 기간 다면 수수료율 적용합니다. *개인 부담금과 퇴직금을 펀드 운용 시 운용 금액에 대한 펀드 보수 별도 부과됩니다. *개인형 IRP 대면 영안저장 수수료는 후취연 0.25% ~ 연 0.45% / DC의 수수료는 후취연 0.38% / 인자 부담금 기준입니다. 상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 기간 종료 후 연금이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하여 15% 소득세(65세 이상은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와 계약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은행 영안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1599-1000) 상담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273(2025.12.22~2026.12.3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5-04396호(2025.10.17~2025.12.31)

July and August

Summer of Emptiness



〈TWO CHAIRS〉 7+8월호에서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가치와 안목을 중시하는
요즘 럭셔리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추구하며 명맥을 이어오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철학과 최근의 럭셔리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여름 특별한 천문 이벤트가 펼쳐질
스페인의 마요르카와 7년 만의 재개장으로 관심을 끄는
몬테네그로의 대표 리조트 아만 스베티 스테판,
그리고 3년 만에 새 음반으로 돌아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한층 깊어진 음악 세계를 함께 전합니다.
무더운 계절의 정점에서 〈TWO CHAIRS〉와 함께 세상의
번잡스러움은 잠시 비워내고, 완벽한 휴식 시간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Special Theme

06	STORY 럭셔리가 품격이 되기까지
10	TREND 요즘 럭셔리
14	PICK THE MASTERPIECE
18	VIEW HIGH LIFE



Trend

24	TRAVEL 21세기 첫 유럽 개기일식 무대 지중해의 보석 마요르카
30	STAY 돌아온 아드리아해의 전설 Aman Sveti Stefan in Montenegro
36	GOLF 정치적 갈등의 섬에서 골퍼의 성지로 Royal Portrush Golf Club, Northern Ireland
40	GOLF LESSON 성공적 벙커 탈출을 위한 핵심 세 가지
44	HOT ISSUE 더위는 날리고, 낭만은 채우고 국내 맥주 페스티벌
48	WINE 우리가 잘 몰랐던 와인 로제의 재발견



52	FOOD TREND 이토록 풍성한 맛의 세계 앞채소
56	CLASSIC STORY 음악적 사유에 대하여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60	CONCERT 여름엔, 평창대관령음악제 Music in PyeongChang
62	PEOPLE & BOOKS BTS 픽
64	ART 무덤 위의 예술, 비엔날레를 삼킨 소음 La Biennale di Venezia
68	HEALTH 치매 위험 줄이는 주거 공간 처방



Wealth

74	MEET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랜드마크 TWO CHAIRS W 잠실
80	INVESTMENT AI 투자 확대와 고금리의 힘겨루기
84	REAL ESTATE 2026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관전 포인트
88	TAX STORY 2026 연말정산 중간 점검 가이드
92	READERS LETTER



격월간 <TWO CHAIRS>는 (주)한경매거진앤북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및 편집인 서정환 **발행처** (주)한경매거진앤북
발행일 2026년 7월 1일 • 7·8월호 제11권 제4호(통권 제79호)
디자인·인쇄 (주)한경매거진앤북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TWO CHAIRS> 매거진은 우리은행 금융 수신 평균 잔액 및 거래 실적 기준 상위 1만 명을 선정해 발송하는 PB 고객 우대 서비스입니다.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선정 주기	연 1회	연 2회(상·하반기)
실적 인정 기간	'25년 07월 ~ '25년 12월	(상반기) '25년 06월 ~ '25년 11월 (하반기) '25년 12월 ~ '26년 05월
DM 발송 기간	'26년 03월 ~ '27년 02월	(상반기) '26년 03월 ~ '26년 08월 (하반기) '26년 09월 ~ '27년 02월

※ 마케팅 DM 수신 동의 고객 限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ECIAL

Beyond High-end

과시적인 소비가 깨우던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의 척도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닌, 어떤 철학을 향유하는가로 결정됩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이 시대의 자산가들이 머물고, 수집하고, 즐기는 하이엔드 라이프에 대해 알아봅니다.



럭셔리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것은—재력이라는 조건은 잠시 접어두고—특정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사는 것과 같다. 샤넬이 그리는 거대한 세계에, 샤넬 백을 소비하는 것으로 발을 디디는 것이다. 나도 그 세계가 마음에 든다고, 샤넬이 보여주는 그 가치를 나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것이다. 그만큼 럭셔리 브랜드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쌓아온 가치가 응축되어 있다. 역경과 굴곡의 시간을 이겨내고 럭셔리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브랜드. 그들이 걸은 오랜 시간의 축적이 브랜드의 가치가 됐다.

포기를 모르는 의지가 만든 혁신, 루이 비통

열세 살 소년이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척박한 집을 떠나 파리까지 걸어갔다. 2년이 걸렸다. 그 소년의 이름은 루이 비통 Louis Vuitton. 그리고 170여 년이 지난 오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새겨진 가방을 수백만 원에 산다. 우리는 왜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 안에 담긴 것은 비싸고 퀄리티 높은 가죽이 아니라, 한 소년의 여정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루이 비통을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시작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루이 비통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821년 프랑스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이 되던 해 집을 떠난 그는 몇 년에 걸쳐 걸어서 파리에 도착했고, 귀족의 여행용 트렁크를 정리하는 패커 Packer로 일하기 시작했다. 오랜 노력 끝에 파리 근교 아니에르 Asnières에 자신의 공방을 열며 꿈을 이루는 듯했지만,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이 발발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 피란을 떠난 그가 전쟁 후 돌아와 마주한 것은 폐허가 된 공방이었다. 수년간 쌓아온 사업도, 삶의 터전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루이 비통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공방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훗날 브랜드의 상징이 되는 혁신적 캔버스 트렁크를 선보였다. 트렁크는 이전까지 사용하던 돔 형태 대신 상단이 평평해 몇 개든 쌓아올릴 수 있었고, 가벼우며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 이 가방의 등장으로 여행의 방식이 바뀌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루이 비통의 가치가 가장 성공했던 순간이 아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루이 비통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시작한 한 소년의 여정을 함께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소년이 여정 끝에 만들어낸 혁신은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



럭셔리가 품격이 되기까지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열정의 시간 같은 것 말이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등락을 거듭하며 럭셔리의 대명사가 된 다양한 브랜드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의미 및 가치를 좇았다.

Writer_ 이윤경 럭셔리 인사이트 대표 Photo_ 언스플래시, 한경DB



1_ 1888년 프랑스 아니에르 공방에서 촬영한 루이 비통 가족과 트렁크 제작자들. 트렁크는 1858년 루이 비통이 개발한 윗면이 편평한 형태로,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다미에 패턴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3_ 2026년 현재 아니에르 공방. 트렁크 제작 과정은 1859년 공방 설립 당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불길을 건넌 영원한 열정,
불가리

루이 비통이 전쟁을 견뎌냈다면, 불가리는 불길을 견뎌낸 브랜드다. 불가리의 창업자 소티리오 불가리Sotirio Bulgari는 그리스 출신의 이민자였다. 가진 것이라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인 정교한 은세공 기술뿐이었다. 그는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로마에 정착했고, 작은 상점에서 직접 만든 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렵게 일군 보석상은 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수년간의 노력과 꿈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거기서 끝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티리오는 달랐다. 그는 타버린 상점을 바라보며 절망하기보다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불은 그의 가게를 태웠지만, 장인으로서의 열정까지는 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은을 깎고, 보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는 훗날 로마를 대표하는 세계적 주얼리 브랜드로 타올랐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가리의 주얼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보석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빈손으로 로마에 도착한 한 이민자의 꿈과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강렬한 열정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다.



1. 밀라노에 있는 불가리 매장.
2. 할리우드 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착용했던 불가리 세르펜티 라인 제품. 뱀은 불가리의 상징이자 주요 모티브다.
3. 가브리엘 코코 샤넬.
4. 1958년 장 콕토(가운데)와 코코 샤넬(왼쪽). 샤넬은 다양한 문화계 인사와 교류했는데, 장 콕토는 잡지에 샤넬 패션모델의 스케치를 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5. 1960년대 코코 샤넬이 디자인한 무릎 밑 5~10cm 길이, 일명 '샤넬 라인'의 트위드 슈트를 입은 모델 모습.

새로움, 저항, 자유의 다른 이름,
샤넬

루이 비통이 핸드백에 여정을 담고, 불가리가 열정으로 반짝이게 한다면, 샤넬은 자유를 입힌다.

우리는 샤넬을 우아함과 럭셔리로 상징으로 여기지만, 샤넬을 만든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의 출발점은 그와 거리가 멀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가브리엘은 수도원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가진 것도, 배경도, 후원자도 없었다. 당시 여성의 삶은 태어난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열여덟 살이 되자 가브리엘은 고아원을 떠나거나 머무는 것과 수녀가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가브리엘은 대부분의 친구와 달리 과감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 물랭의 기숙학교에 머물며 재봉용품점에 취직한 가브리엘은 귀부인에게 상품을 팔고 옷을 수선했으며, 밤엔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삶의 경계를 넓혀간 그녀는 파리에 자신의 이름을 건 여성용 모자 가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샤넬의 비전을 펼쳤다. 그녀는 여성을 불편하게 만든 코르셋을 벗게 했고, 당시 남성복에만 사용하던 소재와 디자인을 여성복에 과감히 도입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비난했다. 너무 단순하다고 했고, 너무

남성적이라고 했으며, 우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샤넬은 멈추지 않았다. 예술 작품 같은 화려한 의상이 유행하던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입기 편하지 않으면 명품이 아니다'라는 철학 아래 남성용 속옷에 쓰던 신축성이 뛰어난 저지 소재로 드레스를 만들고, 땅에 끌려 걷기도 힘들던 긴 치마 대신 무릎길이로 활동성을 높였다. 샤넬은 그렇게 여성 옷의 한계를 벗어나고 고정관념을 깼다. 마치 가브리엘이 자신의 삶에 맞췄던 것처럼. 그녀가 만든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여성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샤넬을 소비하는 이유는 단지 트위드재킷이나 켈팅 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삶을 선택한 한 여성의 자유와 독립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럭셔리 소비하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흔히 럭셔리를 소비한다고 하면 비싼 물건을 산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루이 비통 가방은 언젠가 낡는다. 불가리의 보석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다. 샤넬의 재킷 역시 유행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브랜드를 동경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물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더 오래 매혹되기 때문이다. 열세 살에 집을 떠나 걸어서 파리에 도착한 소년의 여정,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던 장인의 열정,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삶을 선택했던 한 여성의 자유.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가방의 가격은 잊어도 그 이야기는 기억한다. 그들은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럭셔리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품격이 되는 이유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여정과 열정, 그리고 자유를 입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럭셔리는 결국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써 내려간 가치를 입는 일이다. ☺

이 글을 쓴 이윤경은 럭셔리 리더십, 매지니먼트, 세일즈 코치 등을 주로 하는 '럭셔리 인사이트'의 대표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디올, 펜디, 루이 비통 등에서 트레이닝 매니저로도 일했다.

요즘 럭셔리

럭셔리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
다양한 브랜드의 변화가 알려주는
요즘 럭셔리의 조건.

Editor_ 유나리 **Photo_** 한경DB, 밀라노 디자인 위크,
원앤온리 리조트,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

Reference_ Deloitte Insights '2026 글로벌 럭셔리
산업 전망', '럭셔리 브랜드와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융합
트렌드', Trend Hunter



1

①

LUXURY DREAM

럭셔리 브랜드의 호텔·레지던스에서 머물기



2

호텔을 고를 때도 브랜드를 떠올리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호텔이나 레지던스 등 숙박업계에 진출하는 패션 브랜드가 늘고 있다. 호텔 등 숙박 시설은 브랜드가 지닌 미학과 정체성, 그리고 추구하는 세계관을 건축, 가구, 조명, 향, 서비스 등에 녹여내 고객이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로마의 펜디 플래그십 스토어 위층에는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된 스위트룸이 있다. 이탈리아의 럭셔리 호텔 그룹 룬가르노 컬렉션은 페라가모Ferragamo 제품을 객실에 비치하고, 피카소와 카라바조의 원화를 거는 등 브랜드의 유산을 자연스레 노출한다. 에트

로Etro, 돌체앤가바나Dolce & Gabbana 등의 패션 브랜드가 럭셔리 호텔 및 레지던스 등에 진출했고, 크롬하츠Chrome Hearts 또한 미국 말리부에 있는 서프라이더 호텔The Surfrider Hotel을 인수하며 호텔 업계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

- 1. 두바이에 자리한 원앤온리 원 자빌 호텔에는 디올, 돌체앤가바나 등이 큐레이팅한 리조트가 함께 들어선다.
- 2. 로마의 펜디 플래그십 스토어 위층에 있는 프라이빗 스위트룸. 브랜드 경험이 숙박을 통해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2

HOME, LUXURY HOME 걸치는 것을 넘어 같이 살기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에르메스가 전시한 '스타디움 데르메스' 테이블

이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는 추세다. 그간 밀라노 디자인 위크가 가전, 가구, 리빙 브랜드 중심이었다면 올해 특징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 에르메스, 디올, 루이 비통, 구찌 등이 단순히 제품 전시를 넘어 브랜드의 취향이 담긴 공간을 경험하도록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을 공고히 했다. 이미 가정용 패브릭이나 식기 부문을 취급하고 있으나 이제 카테고리가 좀 더 넓어지고 본격화됐다. 루이 비통은 지난해 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새 부티크를 열며 국내에 처음으로 홈·리빙 공간을 소개한 바 있다. 초기 접시나 컵 등 소품 위주에서 이제는 가구까지 제품군을 강화했다. 로로피아나는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인 소재를 특기로 살릴 수 있는 홈 패브릭과 인테리어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고, 이세이 미야케 또한 디자인 위크 기간 선보인 재활용 탁자와 의자 등을 필두로 가구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외연을 넓힌다.

3

ONE & ONLY 인간이 직접 만든 유일무이한 불완전함



직조, 바구니 엮기, 칠보 에나멜링 등 한국 전통 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국내 작가 이광호와 보테가 베네타가 협업한 밀라노 디자인 위크 현장

전 세계 디자인계의 큰 축제이자 트렌드의 척도가 되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보면 하이엔드 럭셔리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올 4월에 열린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선 하이패션 브랜드가 추구하는 '럭셔리' 개념을 어떻게 일상에 스미도록 할지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의도적 불완전함을 내세운 '인간다움', 인간이 손으로 직조한 아름다움을 제시했다. 로로피아나는 자신들의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을 캔버스로 활용한 회화 작품을, 보테가 베네타는 국내 예술가 이광호와 협업해 가죽과 조명을 손으로 엮은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이세이 미야케는 시그니처 스타일인 주름 공정 시 생기는 종이를 압축하고, 끌이나 일본 전통 손도끼 및 공예용 칼 등으로 독특한 질감과 무늬를 만든 의자·탁자 등을 전시했다. 효율성으로 귀결되는 시대에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시간과 공을 들인 이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을 럭셔리하게 채우는 방법인 것.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제품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패션 트렌드인 대대손손 물려받은 부를 지닌 상류층처럼 연출하는 '올드머니 룩'의 핵심은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패턴으로 도배하는 대신 질 좋은 소재, 간결한 디자인의 의상으로 평범한 듯 한 곳 다른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실제 시장조사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2026 명품 소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19~69세 응답자 1,000명 중 76.8%가 "과도하게 과시적인 명품 스타일은 오히려 촌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트렌드에 실루엣이나 소재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패션 브랜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심한 마감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브루넬로 쿠치넬리, 로로피아나 등이 그 주인공. 샤넬 등 럭셔리 브랜드가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을 만큼 한층 웨어러블해진 것도 특징. 샤넬의 2026년 공방 컬렉션은 뉴욕의 버려진 지하철역을 무대 삼아 다양한 뉴요커가 지하철로 오가듯 분주한 모습으로 쇼를 진행했다.

4

SHHH, BE QUIET! 티 나지 않게, 은근하게



'조용한 럭셔리' 룩을 연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브루넬로 쿠치넬리 매장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카테고리 확장 추세는 최근 럭셔리 시장의 트렌드가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딜로이트는 '2026 글로벌 럭셔리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의 럭셔리 브랜드 트렌드가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여행·호스피탈리티 Hospitality·몰입형 리테일' 등이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봤다. 이런 흐름에 백화점이나 브랜드의 고객 프로그램은 더욱 고급스럽게 고도화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은 VIP 고객 프로그램 '에비뉴엘'을 스테이·퀴진·라이프·웰니스·스토어·채리티 등 6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불가리 호텔이나 카펠라 리조트 등 럭셔리 숙소 혜택을 제공하거나 미쉐린 레스토랑, 프리미엄 와인 테이스팅, 승마와 골프 클래스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혜택을 강화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차상위 VIP용 멤버십을 론칭, 국내 최고 석학 및 멘토와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지적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한다. 이렇듯 브랜드가 제공하는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는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

5

VALUE EXPERIENCE 세분화·고급화하는 VIP 서비스



롯데백화점은 VIP 고객을 위해 울릉도에 있는 럭셔리 리조트 '빌라 쏜에'에서 머무르며 정호영 셰프가 제철 재료로 만든 프라이빗 코스 다이닝과 조식, 롯데백화점 소물리에의 와인 페어링을 즐기고, BMW 7 시리즈를 타고 울릉도 명소를 돌아보는 현지 투어까지 진행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점의 예술이다. 브랜드가 잘하는 것을 진짜 제대로 잘할 때, 특정 사건과 시기가 만났을 때 그 희귀한 만남 끝에 탄생한 럭셔리 브랜드의 초고가아트 피스들.

Editor_ 유나리 Photo_ 소더비, 한경DB



The Masterpiece

1 유산이 된 스타일
제인 버킨이 쓰던
에르메스 오리지널 버킨 백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로 아이콘이 된 제인 버킨 Jane Birkin. 밀짚 바구니에 소지품을 터질 듯 담아 다녀 보부상 버킨으로 일컫던 그녀를 위해 에르메스의 CEO였던 장 루이 뒤마 Jean Louis Dumas가 그녀의 이름을 따 ‘버킨 백’을 만들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비행기에서 뒤마를 만난 버킨은 그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형 가죽 가방을 찾기가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냈고, 이에 뒤마가 고안한 새로운 형태의 가방이 바로 버킨 백이다. 제인 버킨은 버킨 백에 주렁주렁 참 Charm을 달거나 캐주얼한 옷차림에 매치하는 등 자유분방하고 여유로운 스타일을 연출했다. 이렇게 그녀가 남긴 스타일은 유산이 됐다. 2025년 7월 소더비 경매에서 제인 버킨이 사용하던 검은색 버킨 백이 858만2,500유로, 15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이전까지 가장 비싼 핸드백은 51만3,000달러(7억8,400만원 가량)에 팔린 다이아몬드와 악어가죽으로 만든 에르메스 켈리 백이었다. 다이아몬드와 악어가죽이라는 초호화 재료를 뛰어넘게 만든 일등 공신은 당연히 버킨이 주야장천 백을 들고 다니며 보여준 ‘넘사벽’ 라이프스타일이다.

2

2세기 동안 숙성된 와인의 맛
샤토 라피트 로칠드 1870

와인은 경매에서 고가를 기록하는 대표적 수집품 중 하나다. 2026년 4월 소더비 뉴욕 경매장에선 와인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진귀한 경매가 열렸다. 일명 ‘불멸의 와인전’. 무려 100년 넘게 글래미스성 Glamis Castle 지하 셀러에 보관되어 있던 보르도 와인 250여 병이 출품된 이번 행사에서 최고가 와인 기록이 경신했다. 샤토 라피트 로칠드 Château Lafite Rothschild 1870 매그넨 2병이 그 주인공. 2병은 총 30만6,250달러, 약 4억6,800만원에 낙찰됐다. 첫 번째 병은 경매 예상가의 2배를 넘는 10만6,200달러에, 두 번째 병은 4배가 넘는 20만 달러에 팔리며 그간의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 와인이 특별한 이유는 19세기 후반 유럽 전역의 포도밭을 초토화한 해충 필록세라가 나오기 이전에 생산된 순수한 유럽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와인 제조에 사용하는 포도는 필록세라에 강한 미국산 뿌리를 접목한 혼합종 나무에서 나는 포도이다. 그러나 1870년산 라피트는 미국산과 혼합되기 전, 순수한 유럽 포도나무에서 수확돼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양조 스타일로 주조한 점을 평가받아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3

세이프 오브 유니크, 세이프 오브 클래식 까르띠에 런던 크래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까르띠에 시계다. 지난 4월 홍콩 소더비에서 열린 경매에서 1987년에 제작된 이 옐로 골드 까르띠에 런던 크래쉬가 1,560만6,000홍콩달러에 낙찰됐다. 한화로 29억원 정도.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비대칭 형태, 수작업 디테일이 돋보이는 이 시계는 1987년 런던에서 딱 3점만 한정 생산한 모델이다. 마치 달리의 그림처럼 초현실적이고 비대칭 형태로 까르띠에 디자인 중 가장 희귀하고 소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크래쉬 라인 은 1960년대 까르띠에 런던 부티크를 이끌던 장자크 까르띠에Jean-Jacque Cartier에 의해 탄생했는데, 이런 파격은 재미있게도 아주 ‘우연히’ 탄생했다. 한 VIP 고객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맥시 오벌Maxi Oval 위치를 가져와 수리를 맡겼는데, 케이스가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에서 매력을 발견한 장자크가 그 형태를 본떠 크래쉬를 만든 것. 당시 런던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충만했고, 실험적 디자인의 아방가르드가 꽃피우던 시기였다. 기존의 전통적 시계 제조 방법과 디자인에서 벗어난 클래식한 브랜드의 ‘파격’에는 이런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4

하이주얼리와 혁신이 만났을 때 부쉐론 푸앙 당테로가시옹

19세기를 떠올려보자. 모든 것이 정교하고 거추장스러워야 고급스러움을 인정받던 시기엔 목걸이도 혼자서 착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하녀의 도움이 있어야 뒤를 잠글 수 있었다. 하지만 부쉐론의 이 목걸이가 나오면서 잠금장치 없이 스스로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바로 물음표 모양을 닮아 ‘퀘스천마크 목걸이’로 부르는 푸앙 당테로가시옹Point d'Interrogation이다. 간결한 라인과 화려한 모티브가 어우러진 이 목걸이는 1881~1883년 출시와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작은 부품이 맞물려 유연하게 착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디자인 덕분에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부쉐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공을 세웠다. 사용자가 혼자서 착용할 수 있다는 자유와 혁신은 다양한 변주를 만들어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5

물성을 뛰어넘는 가치 미라 나카시마의 산소 다이닝 테이블

디자인 가구는 이제 소더비 경매에서도 고가로 팔리는 인기 품목이다. 전설적 목공예가 조지 나카시마George Nakashima의 딸, 미라 나카시마Mira Nakashima가 잇는 나카시마 가구는 중고 시장에서 최고 12억원에 낙찰된 적이 있을 정도로 요즘 인기 높다. 생 로랑은 파리에 레스토랑을 열 때 나카시마의 라운지체어를 들였고, 할리우드 배우 줄리엔 무어, ‘더 로우’를 이끄는 올슨 자매부터 애플의 (고)스티브 잡스까지 나카시마 가구의 매력에 빠진 사람의 명단은 아주 길다. 나카시마의 가구는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낸 미드센추리 디자인의 단순함에 자연이 빚은 자연스러움을 더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무 안에 있는 요철도 그대로 작품이 된다. 나무 본연의 성질을 유지한 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소더비가 7월 경매에 공개할 미라 나카시마의 1999년 작 산소 다이닝 테이블Sango Dining Table은 아버지가 만든 세계를 같은 듯 다른 방식으로 잇는 걸작으로 꼽힌다. 조지의 작품이 좀 더 절제되어 있다면 미라의 작품은 나무의 표현력을 더욱 잘 드러낸다. 소더비는 미라의 산소 다이닝 테이블 낙찰 예상가를 4만~6만 달러(약 6,000만~9,000만원)으로 예상한다.☪



High Life

초호화 호텔 & 리조트 브랜드가 짓는 레지던스에서는 어떤 일상을 그릴 수 있을까?

입고 먹고 자는 것을 넘어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곳,
프리미엄 레지던스가 보여주는 하이엔드 일상의 단면들.

Editor_ 유나리 Photo_아만, 원앤온리 리조트, 카펠라 호텔 그룹, 포시즌스 리조트 앤 레지던스, 한경DB



빛과 물이 은은하게 떨어지는 오가닉 스파 가든

중동의 몰디브에서 유유자적 살기 포시즌스 리조트 앤 레지던스 아말라엣 트리플 베이

과거 왕족들의 전용 휴양지였던 홍해 연안에서 호사스럽게 이국적으로 살아볼 기회다. 포시즌스 리조트 앤 레지던스 Four Seasons Resort and Residences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에 지은 아말라엣 트리플 베이 AMAALA at Triple Bay 레지던스는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휴양지 느낌의 거주 시설. 일대는 중동의 몰디브를 꿈꾸며 최근 포시즌스 외 다양한 리조트가 들어서는 핫한 지역이다. 홍해와 붉은 사막, 울창하게 우거진 조경, 폭포 등 모든 게 이국적인 이곳은 호텔 객실 외 총 25개 레지던스만 있어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다. 집을 비웠다 돌아올 때 냉장고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프라이빗 제트기 예약, 강아지 산책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제공한다. 포시즌스는 아말라를 포함해 총 21개 국가에 56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www.fourseasons.com

화려함의극치 원앤온리 프라이빗 홈 원자빌 레지던스 두바이

원 자빌 One Za'abeel 빌딩은 100m 높이에서 2개 타워를 수직으로 연결한 독특한 구조를 자랑한다. 일명 '더 링크'로 일컫는 이 공간은 전망대, 레스토랑, 인피니티 풀 등이 있는데 바닥이 유리다. 말 그대로 두바이 상공에 떠서 호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셈. 초호화 리조트 브랜드 원앤온리 One & Only의 레지던스가 이곳 원 자빌에 위치한다. 호텔, 업

무 시설, 쇼핑 등 모든 것을 한 빌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곳은 침실 1~4개짜리 일반 아파트와 침실 5개가 있는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타입의 주거 공간이 264개 있다. 이곳에 살면 주택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 서비스 One Service,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어지 등 최상급 관리 서비스는 물론 전 세계 원앤온리 리조트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www.onezaabeel.com



1,2. 두바이 중심부에 위치해 두바이 무역센터, 부르즈 할리파 등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풍경 삼아 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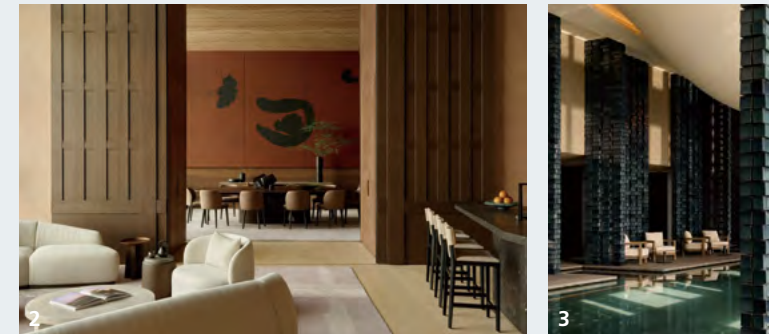
클래식하게, 우아하게 만다린 오리엔탈 레지던스 비엔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비엔나의 구시가지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레지던스 Mandarin Oriental Residences에서는 클래식한 올드머니 룩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1908년에 완공한 대표적 아르누보 양식을 자랑하는 옛 법원 건물을 세심하게 복원한 이 레지던스에선 성 슈테판 대성당과 호프부르크 왕궁을 조망하며, 명품 거리에서 쇼핑하는 등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건물이 줄 수 없는 시간과 역사가 아로새겨진 이곳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역사와 품격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만다린 오리엔탈은 비엔나 외에도 뉴욕, 방콕 전 세계 주요 대도시를 물론 베트남 다낭, 말레이시아 데사루 등 휴양지에도 레지던스를 운영 중이다.

mo-residencesvienna.com



1. 컨템퍼러리, 클래식 등 디자인에 따라 맞춤형 레지던스 25개가 있다. 사진은 클래식 타입
2. 오스트리아 문화재로 지정된 대표적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로,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한다.



1. 도쿄 도심의 파노라마 전망을 내려다보며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서실
2. 라운지와 프라이빗 다이닝 룸 등 우아한 공용 공간도 갖췄다.
3. 수영장이 있는 스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도쿄 전경을 감상하며 쉴 수 있다.

조용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총집합 아만 도쿄 레지던스

요즘 럭셔리 트렌드 중 하나인 '조용한 럭셔리'에 딱 어울리는 곳, 아만 Aman이 도쿄에 지은 레지던스. 도쿄 타워가 보이는 일본 내 최고층 주거 건물인 모리 빌딩 Mori Tower에서도 상층부 11개 층에 걸쳐 조성되었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혼잡하고 발전한 도시 중심부,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우아하게 고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54층과 56층에 있는 다과실, 도서관, 독서실, 라운지, 바 등 다양한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5m 규모의 프라이빗 풀이 있는 아만 스파에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호사스러운 일상이 가능한 고급스러운 도심 생활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곳. 아만은 도쿄 외에도 홋카이도, 중국 상하이, 미국 뉴욕, 싱가포르 등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에 최고급 레지던스 20여 개를 운영 중이다.

www.aman.com

서울의 센트럴파크 누리기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아만, 원앤온리 같은 세계적 럭셔리 리조트 브랜드 중 하나인 카펠라 Capella가 운영하는 레지던스가 서울에 상륙한다. 세계적 호텔 & 리조트 그룹인 카펠라가 서울 서초구에 레지던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의 중심 지임에도 불구하고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서초구 현인마을은 도심 속에서 안식처를 찾는 사람에게 딱 좋은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이곳에 입주하면 카펠라가 운영하는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센터, 펫 클럽 등 세계 최정상급 서비스를 누리며 호젓하게 살 수 있다. 2027년 완공 예정. ☪

capellahotels.com



1.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전용 클럽하우스,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클럽'. 거주 시설을 완공하기 전 미리 오픈한 클럽하우스에서 레지던스에서 누릴 일상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2. 클럽하우스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 스튜디오 리에그르의 시그니처인 스파이럴 형태의 계단이 눈에 띈다.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스티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스티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T
R
E
N
D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 등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



21세기 첫 유럽 개기일식 무대

지중해의 보석 마요르카

Mallorca

전 세계 여행자의 시선이 지중해의 섬 마요르카의 하늘로 쏠린다.
27년 만에 찾아오는 개기일식과 유성우가 동시에 펼쳐지는 유일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지상 최대의 우주 쇼와 보석같이 아름다운 풍경,
역사 유적으로 가득한 섬 마요르카로 떠나보자.

Writer_투경아 **Photo_**스페인 관광청, 게티이미지, 셔터스톡

올여름, 전 세계인의 관심이 스페인으로 집중된다.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이베리아반도에서 두 번의 개기일식(日蝕)과 한 번의 금환일식(金環日蝕)이 연달아 펼쳐지는 이른바 ‘이베리안 트리오’^{Iberian Trio} 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럽 대륙에서 21세기 최초로 관측 가능한 개기일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올해 8월 12일 펼쳐진다. 베링해 상공에서 출발한 달의 그림자는 아이슬란드 근처에서 절정을 맞이한 뒤 스페인을 향해 내려온다. 레온, 사라고사, 발렌시아를 거쳐 마요르카와 이비사 등 발레아레스제도가 개기일식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한다. 일몰 무렵의 낮게 깔린 태양 위로 달이 완전히 겹치는 순간, 하늘은 낮도 밤도 아닌 빛으로 물든다.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타이밍 역시 절묘하다. 이 개기일식은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절정 시기와 맞물린다. 일식이 끝난 밤하늘에선 유성이 쏟아지는 또 하나의 우주 쇼가 펼쳐진다. 하룻밤 사이 두 가지 천문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올여름 마요르카가 유일하다.

마요르카는 지중해 발레아레스제도에 속하는 섬이자,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섬이다. 투명한 튀르쿠아즈 블루빛 해변과 숨어 있는 동굴, 끝없이 펼쳐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자랑한다. 온화한 기후와 지중해식 라이프스타일 덕분에 오랜 세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으로 사랑받아왔다. 여행은 마요르카의 심장부 팔라데마요르카^{Palma de Mallorca}(이하 팔마)에서 시작해 외부와 단절된 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데모사^{Valldemossa}, 소예르^{Sóller} 등으로 이어진다.



마요르카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해변 칼라 포르탈스 노우스



수 세기에 걸쳐 건립된 팔마의 랜드마크 산타 마리아 데 팔마데마요르카 대성당

유럽의 휴양지, 그 이상의 오랜 역사 도시

마요르카의 주도 팔마는 유럽의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여행지다. 기원전 120년경 로마 도시로 건설됐으며, 902년부터 1229년까지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며 도시의 원형이 완성되어 당시 흔적들이 도시 곳곳의 다양한 건축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팔마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웅장한 고딕 양식의 산타 마리아 데 팔마데마요르카 대성당(Catedral de Santa María de Palma de Mallorca)이다. 과거 로마 신전 위에 세워진 이슬람 모스크 자리에 수

세기(1229~1601년)에 걸쳐 건립된 이 성당은 오래전 바다와 맞닿아 있던 구시가지 성벽 위로 압도적 자태를 드러낸다. 1904년에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내부 보수 작업에 참여해 독창적 예술성을 더했으며, 거대한 장미 창을 통해 성당 내부로 쏟아지는 빛의 향연이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한다. 대성당 바로 옆에는 13세기 건립된 알무다이나 왕궁(Palacio Real de la Almudaina)이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자리한다. 이 역시 10세기 무슬림들이 지은 요새인 '알카사르'를 기반으로 증축한 궁전으로, 현재도 스페인 왕실의 공식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내부에는 왕실 예배당과 중세 홀이 잘 보존돼 있다.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만나는 팔마의 진짜 얼굴

이 두 건물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진짜 팔마의 매력인 구시가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무어 시대부터 형성된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으며, 곳곳에 아기자기한 광장과 안뜰, 로컬 타파스 바와 감각적인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구시가지 중심부에 자리한 메르카도 데 르올리바르(Mercado de l'Olivar)는 팔마의 대표 전통 시장이다. 신선한 지중해산 해산물과 현지 특산물, 풍미 가득한 하몽을 구경하고 맛보기에 제격이다.

구시가지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파세이그 델 보른(Passeig del Born)은 팔마에서 가장 활기찬 메인 거리로, 울창한 가로수 아래 카페와 갤러리 및 쇼핑 매장이 늘어서 있다. 이 길을 따라 해안 방향으로 내려가면 산책로가 이어지며, 푸른 지중해 위에 정박한 수많은 요트와 그 뒤로 우뚝 솟은 대성당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언덕 위에는 베베르성(Castell de Bellver)이 서 있다. 14세기에 지은 이 성은 유럽에서 보기 드문 '원형 성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요새 꼭대기에 오르면 팔마 시내와 만 전체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 1_ 고대 로마 유적과 이슬람 지배 시절의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팔마
- 2_ 지중해를 180도로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갖춘 푸로 비치
- 3_ 신선한 지중해산 식재료를 만날 수 있는 전통 시장 메르카도 데 르올리바르

예술가의 영혼이 깃든 산악 마을 바데모사

마요르카의 주도 팔마에서 벗어나 북서부로 향하면 나타나 는 웅장한 트라문타나산맥 자락에는 팔마와는 전혀 다른 얼굴의 매력적인 마을 두 곳이 나란히 자리한다. 바데모사와 소예르다. 두 마을은 차로 30~40분 거리에 있어 하루 일정 으로 함께 둘러보기 좋다.

팔마에서 북쪽으로 약 17km 떨어진 바데모사는 해발 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산악 마을이다. 지형적 특성 덕분에 사시사철 서늘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 중심에는 카르투하수도원Real Cartuja de Valldemossa이 있다. 14세기에 세운 이 왕립 수도원은 1838년 겨울, 작곡가 프레 데리크 쇼팽과 그의 연인이자 소설가 조르주상드가 머물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쇼팽은 폐결핵 요양을 위해 찾은 이 차가운 수도원에서 불후의 명곡들을 쏟아냈는데, 현재 수도 원 내부에는 그가 당시 사용했던 피아노와 친필 악보, 유품 등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다.

수도원을 나와 마주하는 바데모사의 골목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야외 미술관이다. 단정하게 쌓아 올린 돌담마다 주민들이 가꾼 화분이 줄지어 있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꼽힌다. 마을 규모가 크지 않아 반나절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1. 프레데리크 쇼팽과 그의 연인이 머물면서 유명해진 바데모사
2. 돌담을 수놓은 화분들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꼽힌다.



빈티지 교통수단으로 닿는 오렌지 향 가득한 소예르

바데모사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를 따라 30분쯤 달리다 보면 싱그러운 오렌지 향이 가득한 소예르에 닿는다. 과거 오렌지 재배로 오랫동안 번영을 누려온 이 마을에는 19세기 말부터 지어진 화려한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소예르 중심 광장에 우뚝 솟은 산트 바르토메우 교회Iglesia de Sant Bartomeu는 고딕 양식의 골조에 화려한 아르누보 양식이 절묘하게 혼재된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하다.

소예르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팔마에서 출발하는 빈티지 목조 열차다. 191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 열차는 트라문타나산맥을 넘어 소예르까지 1시간 동안 터널과 절벽, 오렌지 과수원 사이를 지난다. 소예르 시내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낭만적인 빈티지 트램으로 갈아타고 종점인 항구, 포트 데 소예르Port de Sóller로 향한다. 항구 주변에는 해산물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잔잔한 만을 품은 아늑한 해수욕장도 있다.

하이킹을 원한다면 소예르를 출발해 인근 예술가 마을 데이아Deià까지 이어지는 트라문타나 트레일 코스를 걸어보자.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끝없는 지중해의 수평선은 최고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

1. 오렌지 재배로 번영한 덕분에 화려한 건축물이 많이 남은 소예르
2. 소예르 여행의 하이라이트 빈티지 목조 열차
3. 마요르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히는 소예르만



마요르카 가는 법

한국에서 마요르카로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럽 주요 도시를 경유해 팔마데마요르카 공항(PMI)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파리 등이 주요 경유지다. 인천에서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까지 약 12~13시간, 이후 팔마까지 국내선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바르셀로나 여행을 겸한다면 페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팔마 항구까지 페리로 약 4시간 30분~8시간이 걸린다. 야간 페리를 이용하면 숙박비와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돌아온 아드리아해의 전설

Aman Sveti Stefan in Montenegro

유서 깊은 어촌 마을에서 국왕의 여름 별장으로, 이제는 전 세계 셀러브리티가 사랑하는 프라이빗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한 아만 스베티 스테판은 세상과 마주하는 대신 완벽한 고립을 선택한 이들을 위한 낙원이다. 유구한 세월을 머금은 돌벽 안에서 이어지는 최고 수준의 호스피탈리티, 그리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허락된 곳. 아드리아해의 푸른빛 속에서 제안하는 궁극의 휴식을 마주해보자.

Editor_지연 Photo_아만

험준한 산맥과 고대의 숲, 투명한 호수 그리고 코발트빛 아드리아해의 고요한 코브Cove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진 몬테네그로는 인위적 손길이 덜 닿은 유럽의 마지막 낙원으로 일컫는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Podgorica 남서쪽, 아드리아해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 보면 푸른 바다 한가운데 징검다리처럼 떠 있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섬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그곳이 바로 스베티 스테판이다. 거친 질감의 회색 돌벽과 그 위를 덮은 빛바랜 붉은 기와지붕들. 육지와 섬을 아슬아슬하게 연결하는 단 하나의 좁은 길은 이곳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이 길을 건너 섬의 거대한 나무문을 통과하는 순간, 지극히 현대적이었던 우리의 시간은 수 세기 뒤의 어느 날로 멈춰 서버린다. 스베티 스테판의 역사는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래 아드리아해를 무대로 활동하던 오스만제국의 해적들을 막기 위해 주변의 12개 가문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요새 마을이었다. 세월이 흘러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에는 티

토 대통령의 지시로 국영화되어 소피아 로렌,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숨어들던 전설적 휴양지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섬의 진정한 정수는 전 세계 하이엔드 휴양의 패러다임을 바꾼 ‘아만Aman’을 통해 드러난다. 아만은 섬이 품은 파란만장한 역사와 때 묻지 않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은밀하고도 품격 있는 리조트로 재탄생시켰다.

유서 깊은 아드리아해의 휴양지

2007년 처음 문을 연 아만 스베티 스테판은 2021년 갑자기 문을 닫았다. 몬테네그로 정부와 얽힌 복잡한 분쟁이 그 이유였다. 이후 운영을 중단한 채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2026년 4월 공식적으로 재개장을 발표했고, 오는 7월부터 아만 스베티 스테판의 모든 곳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다. 아만 스베티 스테판은 고대 도시 부드바Budva와 코토르만Bay of Kotor을 가까이에 두고 있다. 유네스코 세

계유산으로 선정된 유적지와 지역 고유의 문화, 그리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장엄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액티비티까지, 아만이 추구하는 세심한 서비스와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어우러져 하나의 깊이 있는 여정을 선사한다. 또한 시즌 기간에는 외부 방문객을 위한 섬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사전 예약 필요)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므로 아드리아해의 가장 상징적 풍경을 보다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다. 아만 스페티 스테판이 추구하는 환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덜어냄과 비움, 즉 ‘여백의 미’에 가깝다. 섬 내부의 골목길은 이끼 낀 돌바닥과 담쟁이덩굴,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낸 벽돌들이 중세 어촌 마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려는 아만의 집착은 지독하리만치 섬세하다. 외관만 보아서는 이곳이 세계 최고급 리조트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묵직한 나무문을 열고 객실 Cottage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반전이 시작된다. 외관의 예스러운 정취와 달리 내부 공간은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정제되어 있다. 화려한 장식이나 원색 가구는 찾아볼 수 없다. 정성스럽게 수작업으로 마감한 회반죽 벽과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채굴한 크림빛 석재, 결이 은은하게 살아 있는 로컬 원목, 그리고 부드러운 린넨 소재가 공간의 주를 이룬다. 이 담백한 인테리어는 창밖의 풍경을 해치지 않는 완벽한 캔버스가 된다. 아침 햇살에 부서지는 아드리아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저녁 무렵 온 섬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은 그 자체로 객실에 걸린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 된다.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객실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성벽을 완만하게 때리는 파도 소리뿐이다. 이곳에서의 고립은 외로움이나 단절이 아닌, 내면을 온전히 마주하게 하는 가장 사치스러운 비움이다.

왕실의 정원에서 향유하는 은밀한 사색

섬의 매력이 단단한 요새 속에서의 고립이라면, 육지 쪽에 자리한 빌라 밀로체르 Villa Miločer는 대자연 속의 공간이다. 수백 년 된 올리브나무와 시더우드, 그리고 야생 허브 향

1. 작은 섬인 요새 마을을 리조트로 변신시킨 아만 스페티 스테판
2.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그너처 풀
3. 모던하면서 심플함을 유지하는 딜럭스 코티지의 베스룸
4. 별도의 건물에 마련된 스파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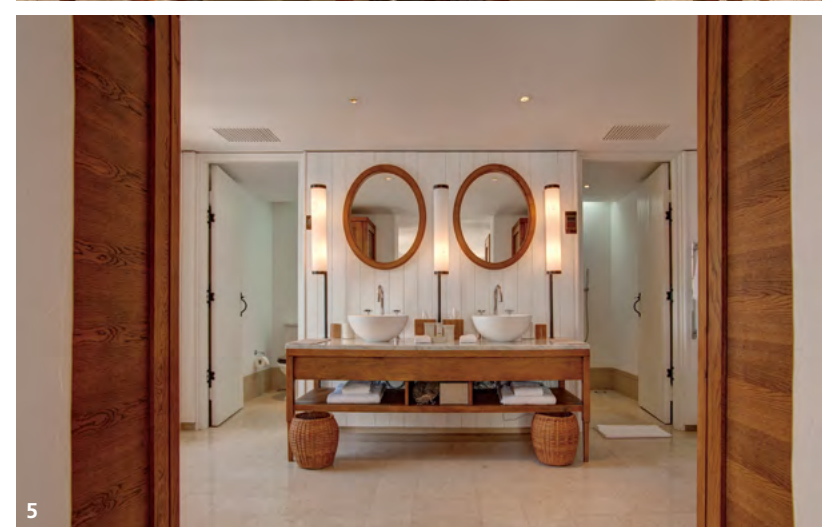


이 가득한 정원에 둘러싸인 이 빌라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마리아 카라조르제비치Marija Karađorđević 왕비의 여름 별장이었다. 19세기에 지은 이 빌라는 본토에서 아드리아해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웅장한 외관 안쪽에는 아름답게 꾸민 8개 스위트룸과 햇살 가득한 거실, 그리고 고요한 사색을 위한 서재가 마련되어 있다. 등나무 그늘 아래 야외 테라스가 있는 다이닝 룸은 빌라의 중심 공간으로, 해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빌라 밀로체르 앞에 펼쳐진 킹스 비치King's Beach와 퀸스 비치Queen's Beach는 아만 스베티 스테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다. 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의 퀸스 비치는 오직 이곳의 투숙객에게만 접근이 허락된다. 핑크빛이 감도는 고운 모래사장에 누워 리조트가 제공하는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받다 보면, 왜 전 세계의 자산가가 세상의 수많은 휴양지를 두고 이 작은 섬으로 숨어드는 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대자연을 잇는 완벽한 거점

아만 스베티 스테판은 몬테네그로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기에 이상적 출발점이다. 5세기에 기원을 둔 부드러운 구시가지의 골목을 거닐거나, 바로크 건축과 해안 마을의 풍경 속에 수백 년의 시간이 쫄쫄이 쌓인 코토르Koto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다. 자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남유럽 최대의 담수 호인 스카다르 호수Lake Skadar가 기다린다.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 곳곳에는 수도원과 요새가 점처럼 흩어져 있으며, 달마티안펠리컨과 검은파오기 등 28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한다. 보트 위에서 느끼는 바람과 호숫가에서 즐기는 피크닉은 몬테네그로 자연이 지닌 순수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체감하게 하며, 아만에서의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완성해 준다.●

예약 및 문의 aman.com



1. 세심한 복원 과정을 거쳐 재탄생한 객실. 소박하면서 고풍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다.
2. 아만 스베티 스테판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빌라 밀로체르의 라운지
3. 빌라 밀로체르의 프라이빗 비치 중 하나인 킹스 비치
4. 올데이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빌라 밀로체르의 로지아
5. 빌라 밀로체르의 스위트 베스룸. 대리석과 원목의 조화가 돋보인다.

정치적 갈등의 섬에서 골퍼의 성지로

Royal Portrush Golf Club,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 골프 클럽의 던루스 링크스 전경. 오랜 세월 침식을 거친 지형이 바다와 만나서 만들어낸 모래언덕은 링크스 코스의 표본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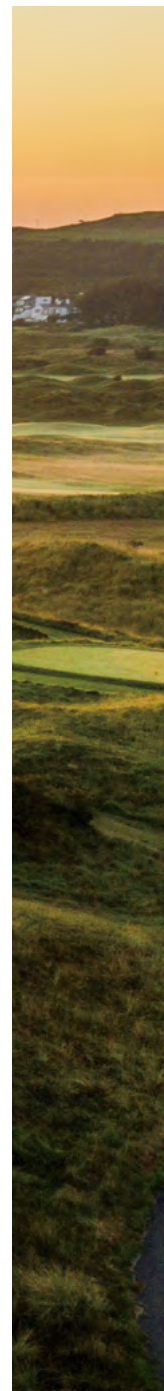
골프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포츠라 할 수 있다. 골퍼 개인의 컨디션과 더불어 날씨, 바람, 지형 등의 영향이 큰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열 포트러시의 거친 자연과 맞서는 라운드는 골퍼라면 평생에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Writer_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_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 PGA오브아메리카

북아일랜드에는 늘 ‘영국에서 가장 정치적 불안이 큰 섬’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녔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입지, 그로 인해 빚어진 수많은 테러와 정치적 갈등으로 널리 알려진 탓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골퍼들에게 이곳은 평생 꼭 한 번은 봐야 할 버킷리스트가 됐다. 현시대의 골프 황제로 군림하는 로리 매길로이의 고향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 ‘디 오픈 챔피언십’을 세 번(1951년, 2019년, 2025년)이나 성공적으로 치른 명문, ‘로열 포트러시 골프 클럽(Royal Portrush Golf Club)’이 일궈낸 기적 같은 변화다.

왕실의 후원과 해리 콜트의 손길이 빛은 역사

로열 포트러시의 시작은 그야말로 소박했다. 1888년 북아일랜드 앤트림주 해안가의 황량한 모래언덕에 ‘더 컨트리 클럽’이라는 이름을 단 9홀 규모의 소박한 골프장으로 탄생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구자들은 이 땅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봤다. 이듬해 조지 L. 베일리와 토머스 길로이가 클럽의 체계적 기틀을 잡기 시작했고, 같은 해 골프 역사상 가장 전설적 인물인 올드 톰 모리스의 조언을 받아 18홀 코스로 변신했다. 그리고 1895년 왕실이 공식 후원자로 나서면서 지금의 로열 포트러시 골프 클럽으로 완성됐다. 로열 포트러시는 1929년 코스 설계의 거장 해리 콜트와의 만남을 계기로 세계적 명문 클럽으로 도약했다. 뮤어필드, 로열 리버풀 등 디 오픈 순회 대회 코스를 설계한 콜트는 로열 포트러시로부터 “당대 최고 골퍼들을 시험할 챔





던루스 링크스의 5번 홀 그린. 설계자 해리 콜트는 모든 홀의 그린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매 홀 전략적이면서도 정교하게 그린을 공략하도록 했다.



던루스 링크스의 7번 홀(파 5). 2019년 디 오픈을 앞두고 리뉴얼한 홀로, 거침없이 굴러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피언십 코스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콜트가 지형의 굴곡과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살려 1933년 완성한 ‘던루스 링크스Dunluce Links’는 콜트 스스로도 “내 평생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 칭송할 만큼 완벽한 링크스 코스의 표본이 되었다.

대자연이 선물하는 압도적 절경과 거친 숨결

로열 포트러시는 던루스 링크스와 벨리 링크스, 2개의 18홀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디 오픈의 무대인 던루스 링크스는 인근 해안 절벽 위에서 있는 13세기 던루스성에서 이름을 따왔다. 오랜 기간 침식을 거치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성이 대서양의 검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장엄하고도 애잔한 감동을 준다. 특히 멀리 던루스성의 실루엣이 액자처럼 바라보이는 5번 홀(파 4)과 하염없는 오르막을 향해 샷을 날려야 하는 7번 홀(파 5)의 티잉 구역에 서면 왜 전 세계 골퍼가 자연과의 투쟁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으로 골프백을 들고 찾아오는지 실감하게 된다.

한국의 산악형 코스에 익숙한 골퍼에게 이곳의 거대한 모래언덕 둔스Dunes와 역동적인 고저 차는 낯설고도 환상적

인 충격을 준다. 잔디를 밟을 때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링크스 특유의 거칠고 질긴 질감,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짙 내 나는 바닷바람은 정통 링크스 골프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준다. 날씨는 또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순식간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친다. 하루에 사계절이 다 펼쳐진다는 게 과장이 아니다. 이 바람에 따라 코스는 매 순간 1,000개 얼굴로 변신하며 골퍼를 시험한다. 이곳에서의 라운드는 6,000만 년의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이 깎아 만든 날것 그대로의 대자연의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다.

악명 높은 ‘재앙의 코너’와 ‘연옥’의 시험대

오거스타 내셔널에 ‘아멘 코너’가 있다면, 로열 포트러시 던루스 링크스에는 ‘재앙의 코너Calamity Corner’가 있다. 236야드 전장의 16번 홀(파 3)이 그 주인공이다. 코스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대서양 해풍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이 홀에 대해 타이거 우즈(미국)는 딱 세 단어로 설명했다. “이 홀은 어렵다(That’s hard).” 그레이 맥다월은 “바람에 따라 3번 아이언을 잡을지 드라이버를 잡을지 고민해야 하는 잔인한 홀”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16번 홀은 티

잉 구역에서부터 골퍼들을 압도한다. 영국 전문 골프 여행사 링크스게이지의 윤영호 대표는 “이 코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홀이기에 티잉 구역에 서면 오른쪽 아래로 15m 깊이의 거대한 절벽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어 골퍼의 시야를 압박하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소개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홀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바닷바람이 심할 경우 티 샷을 그린에 올리는커녕 공을 살려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정도다. 2019년 디 오픈 때 16번 홀에선 선수들의 그린 적중률이 41%에 불과했으며, 나홀간 버디가 24개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다. 작년 디 오픈에서 나홀간 이 홀 평균스코어는 3.192타, 악명에 비해서는 아주 나쁘지 않은 스코어이지만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골퍼들이 이 홀에서 “파만 지켜도 잘한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홀에서의 플레이는 순위와 직결되기도 한다. 작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자신의 장기인 송곳 아이언 샷으로 변덕스러운 칼바람을 공략했고,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사흘 연속 버디를 잡아냈다. 그가 지난해 클라레 저그의 주인이 된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재앙의 코너를 정면으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 지옥 같은 16번 홀을 간신히 지나면 곧바로 ‘연옥Purgatory’이라는 별명의 17번 홀이 기다린다. 천국으로 가기 전 죄를 씻기 위해 불로 단련받는 곳이라는 이름처럼, 그린 주변에 도사린 위협적인 항아리 벙커들이 골퍼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버린다. 로열 포트러시를 라운드한다는 것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대자연의 거친 시험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스코어 카드는 엉망이 될지언정, 대서양의 바람을 뚫고 마지막 18번 홀 그린에 올라설 때 밀려오는 성취감과 자부심은 그 어떤 코스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



던루스 링크스의 5번 홀. 해안가를 접하고 있어 강한 해풍을 온몸으로 느끼며 플레이하게 된다.

성공적 벙커 탈출을 위한 핵심 세 가지

파 세이브를 위해 반드시 붙여야 하는 상황. 핀까지는 20m 남짓. 하지만 볼은 하필 그린사이드 벙커에 박혀 있다. 탈출만 하자는 마음으로 스윙했지만, 볼은 턱을 맞고 다시 모래 속으로 떨어진다. 한 번의 실수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면서스코어 카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많은 골퍼가 두려워하는 벙커. 하지만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쉽게 탈출할 수 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벙커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와 안정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소개한다.

Writer_ 이루나 Photo_ 이루나, 프리픽

벙커는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이다. 평소 연습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 일반 샷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벙커 샷은 원리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단순하다. 벙커 샷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모래 위에서 샷을 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볼을 직접 맞히려는 본능과 벙커 샷의 원리가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벙커 샷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일반 샷처럼 볼을 직접 맞히는 것이 아니라 볼 뒤쪽의 모래를 먼저 쳐내고, 그 힘으로 볼을 띄우는 것이다. 즉, 벙커 샷의 성공 여부는 볼을 얼마나 정확히 맞혔느냐가 아니라, 볼 뒤의 모래를 얼마나 일정하게 콘택트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아마추어 골퍼들의 대표적 미스 패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알아보자.

MISS PATTERN 01 너무 높은 어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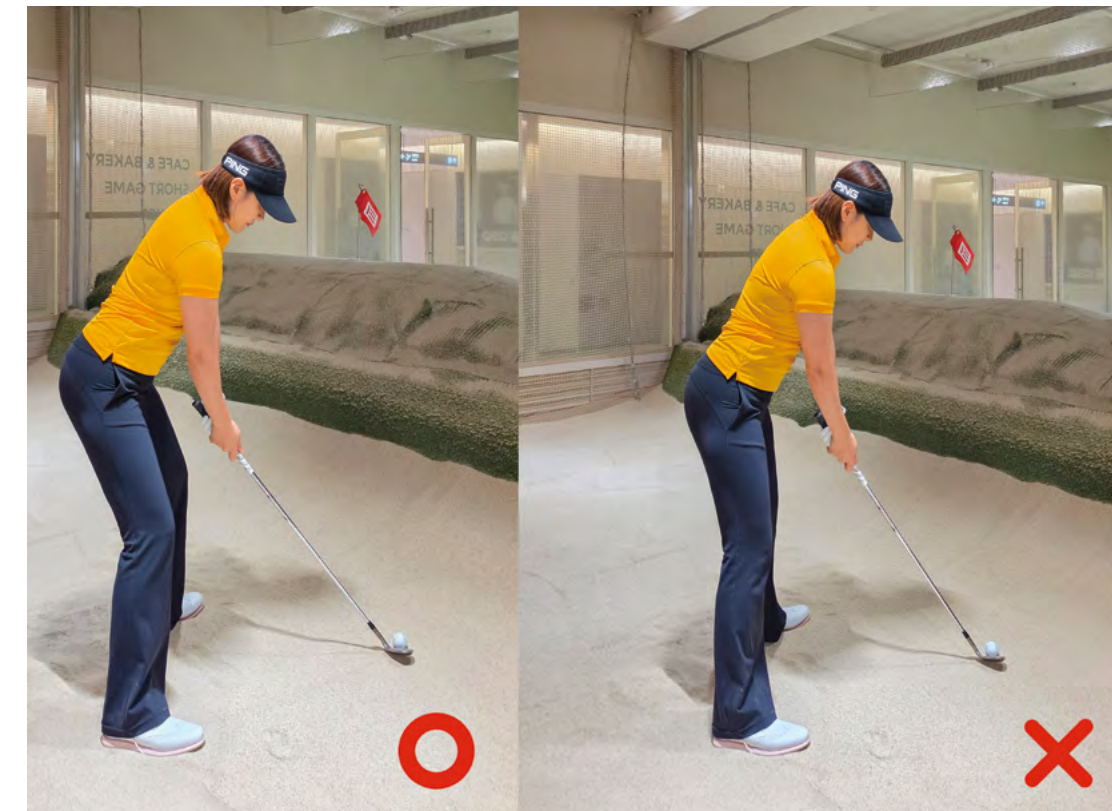
아마추어 골퍼들이 벙커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평소와 같은 높이로 어드레스하는 것이다. 벙커에서는 발이 모래 속으로 일부 파묻히기 때문에 실제 신장이 평소보다 낮아진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 클럽의 솔(Sole)이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공 뒤의 모래를 일정하게 콘택트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클럽이 모래를 얇게 스치거나 볼을 직접 가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흔히 말하는 ‘흙런 미스’가 발생한다. 특히 볼을 띄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골퍼일수록 상체를 세운 채 어드레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벙커 샷의 성공 확률을 떨어뜨린다.

Solution 발을 묻고 자세 낮추기

너무 높은 어드레스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벙커에 들어선 후 발을 모래 속에 가볍게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발을 좌우로 비틀어 모래에 안정적으로 고정된 뒤, 그만큼 낮아진 신체 높이에 맞춰 무릎을 조금 더 굽혀 자세를 낮춘다. 이때 클럽 헤드 볼 뒤 모래에 가볍게 내려놓고, 클럽이 자연스럽게 모래에 닿는 높이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상체가 지나치게 꼳꼳하거나 무릎이 펴져 있다면 클럽 바닥이 모래에 닿지 않고 떠 있는 느낌이 들 것이다.

CHECK POINT

1. 발을 모래에 묻은 만큼 자세도 함께 낮춘다.
2. 무릎을 살짝 굽혀 하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MISS PATTERN 02
오픈되지 않은
클럽 페이스



아마추어 골퍼들이 벙커에서 자주 범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클럽 페이스를 열지 않은 채 일반 샷과 같은 방식으로 어드레스하는 것이다. 볼을 정확히 맞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페이스를 여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져 무의식적으로 스퀘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페이스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딩 에지가 모래에 먼저 진입하면서 클럽이 깊게 박힐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볼이 벙커 턱을 넘지 못하거나, 탈출하더라도 거리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벙커 샷에서는 공을 직접 맞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활용해 볼을 띄워야 한다. 따라서 어드레스 단계에서부터 클럽 페이스를 적절히 열어 바운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준비 동작 하나가 벙커 샷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준다.

Solution 페이스 오픈 후 그립 잡기

클럽 페이스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벙커에 들어가면 불안감 때문에 다시 스퀘어로 돌아가는 아마추어 골퍼가 많다. 이를 교정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클럽을 먼저 열고 그립을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어드레스에 들어가기 전 클럽 헤드를 목표 방향보다 약간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열어놓은 뒤, 그 상태를 유지하며 그립을 잡는다. 이후 스텐스와 몸의 정렬만 목표보다 약간 왼쪽으로 맞춰준다. 이렇게 하면 스윙 중 별도의 조작 없이도 바운스를 활용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연습 시에는 벙커에 선을 하나 긋고, 볼 없이 모래만 쳐내는 드릴을 반복해보자. 페이스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클럽이 모래에 깊이 박히는 느낌이 강하고, 적절히 열린 상태에서는 클럽이 모래를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두 차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페이스 오픈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CHECK POINT

- 1. 클럽 페이스를 먼저 연 뒤 그립을 잡는다.
- 2. 몸의 정렬은 목표보다 약간 왼쪽으로 맞춘다.
- 3. 볼 없이 모래만 치며 바운스가 미끄러지는 느낌을 익힌다.



MISS PATTERN 03
뒤로 빠지는 체중



벙커에 들어가면 많은 아마추어 골퍼는 무의식적으로 체중을 오른발에 두거나, 임팩트 순간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한다. 공을 높이 띄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작은 벙커 샷의 성공 확률을 크게 떨어뜨린다. 체중이 뒤로 빠지면 스윙의 최저점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클럽이 공 뒤의 모래를 정확하게 가격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클럽이 모래에 과도하게 박히거나, 반대로 볼만 얇게 맞아 홈런 미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임팩트 이후 몸의 회전이 멈추면서 스윙이 짧아지고, 거리 조절도 어려워진다. 벙커 샷에서는 어드레스 단계부터 체중의 60~70% 정도를 왼발에 두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임팩트 이후에도 체중이 목표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클럽이 안정적으로 모래를 통과할 수 있다. 공을 띄우는 것은 체중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 아니라, 바운스를 활용해 모래를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Solution 왼발 체중 유지하기

체중이 뒤로 빠지는 골퍼들은 대부분 공을 띄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벙커 샷에서 공을 띄우는 것은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이 아니라, 클럽이 모래를 폭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결과다. 따라서 체중을 왼발에 유지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 방법은 간단하다. 어드레스 시 체중의 60~70%를 왼발에 실은 뒤, 스윙이 끝날 때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연습하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체중을 왼쪽으로 유지하면 클럽의 최저점이 일정해지고, 공 뒤의 모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콘택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연습 방법은 볼 없이 모래에 선을 긋고 스윙한 뒤, 클럽이 선의 어느 위치를 지나갔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체중이 뒤로 빠지면 클럽이 선 뒤쪽에 닿거나 모래를 과하게 파내는 경우가 많고,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정한 위치의 모래를 반복적으로 가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CHECK POINT

- 1. 어드레스부터 체중의 60~70%를 왼발에 둔다.
- 2.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연습하면 체중 이동을 줄일 수 있다.
- 3. 스윙 내내 왼발의 압력을 유지하며 모래를 일정하게 콘택트한다.

벙커는 많은 아마추어 골퍼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벙커 샷은 감각이나 힘으로 해결하는 샷이 아니다. 올바른 자세와 원리를 이해하고 반복 연습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벙커를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소개한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한다면 벙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



1

더위는 날리고, 낭만은 채우고 국내 맥주 페스티벌

시원한 맥주 한잔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
국내에도 독일 옥토버페스트 못지않은 신나는 지역 맥주 축제들이 열린다.
올여름, 무더운 열기를 잠시 식힐 수 있는 신나는 맥주 축제를 소개한다.

Editor_두경아 Photo_각지역축제제공

여름을 대표하는 주류로 맥주만 한 것이 있을까. 시원한 맥주 한잔이면 무더위는 금세 날아가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탄산이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맥주는 청다오 맥주 축제,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 등 전 세계 여름 축제의 단골 주인공으로 사랑받아왔다. 국내에도 이 같은 맥주 축제가 전국에서 열린다. 가장 대표적 축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다.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식음 축제로, 2013년 첫 개최 이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다. 대구가 이토록 치킨으로 유명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를 중심으로 계육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우리가 잘 아는 멕시카나, 처갓집양념치킨, 교촌치킨 등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들이 대구에서 탄생했다. 올해 축제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메인 행사장인 2·28 자유광장은 시원한 물놀이와 일렉트로닉 음악을 결합한 워터 콘서트 테마로 꾸며지며, 360도 중앙 무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리고 '대프리카 워터피아', '치맥메창클럽', '치상낙원 EGG섬'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조성되며, 아티스트와 협업한 조형물 및 포토 존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행사장을 연결하는 'K치맥 스트리트'에서는 강렬한 매운맛 불닭 소스 레드 존, 야시장 감성 포차 존, 잔잔하고 격식 있는 치맥 다이닝 화이트 존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치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1. 치킨의 도시 대구에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맥주 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2.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구성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성하다.



2



드넓은 야외 공원에서 낭만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송도맥주축제

서울과 인천, 도심에서 즐기는 맥주 축제

대구 못지않은 규모와 열기는 인천에서도 이어진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송도맥주축제’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의 대표 여름 축제다. 올해 축제에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드넓은 야외 공원에서 국내외 맥주와 푸드 트럭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정상급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과 매일 밤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올해는 오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9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특별한 맥주 축제가 펼쳐진다. 8월 28~29일 양일간 장안1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는 동대문구 맥주 축제 ‘브루브루 맥주공장’은 한여름 밤의 수변 문화 축제다. 수상 무대에서는 공연이 펼쳐지고, 국내 대표 브루어리들의 신선한 수제 맥주와 다채로운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축제장은 주류 존과 푸드 존을 비롯해 음식 및 주류 섭취가 가능한 돛자리 공간인 돛자리 존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재즈와 디제잉 등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 존, 다양한 장르의 음악영화 및 공연을 감상하는 무대 음악영화 및 무대 존 등으로 알차게 구성된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 쓰레기를 줄이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으로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다양한 국내 수제 맥주를 만날 수 있는 동대문구 맥주 축제, 브루브루 맥주공장

뮌헨 옥토버페스트를 재현한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

비록 여름을 벗어난 가을에 열리는 축제지만, 실제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의 이국적 정취가 궁금하다면 남해로 떠나보자. 한국 속 작은 독일이라 일컫는 남해 독일마을에서 실제 뮌헨 옥토버페스트를 모태로 기획한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가 열린다. 1960~19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정착해 일군 독일마을을 배경으로, 정통 독일 문화를 국내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오크통과 마차, 유럽풍 전통 의상을 차려

입은 사람들, 주황색 지붕의 독일식 주택들이 초록 바다와 어우러지며 이국적 풍경을 연출한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에는 정통 독일 맥주와 함께 소시지, 독일식 족발인 학센 등 다양한 독일 전통 음식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마을 주민과 여행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영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옥토버 나이트 파티 등 흥겨운 행사들이 사흘 내내 이어진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두루 갖춰 누구나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실제 옥토버페스트를 모태로 기획한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



주황색 지붕의 독일식 주택들이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남해 독일마을

2026년 하반기 맥주 축제 일정

축제	기간	장소	주요 내용
대구치맥페스티벌	7월 1~5일	두류공원 일원	치킨과 맥주가 주인공인 축제
송도맥주축제	8월 22~30일	송도달빛축제공원	드넓은 야외에서 불꽃놀이 관람
브루브루 맥주공장	8월 28~29일	장안1 수변공원	국내 대표 수제 맥주를 골라 마신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	10월 9~11일	삼동면 독일마을	실제 독일 맥주 축제 분위기 재현

우리가 잘 몰랐던 와인 로제의 재발견

로제 와인은 여성을 위한 달콤한 술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며,
여러 음식과 두루 어울리는 드라이 로제도 있다.

Editor_ 김혜경 Photo_ 게티이미지뱅크, 프리픽



레드와 화이트는 익숙하지만, 로제 와인은 왠지 낯설다. 기껏해야 데이트와 잘 어울리는 장밋빛 술, 혹은 케이크에 곁들이는 디저트 와인 정도로 여기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 수입되는 로제 와인 중 상당수는 청량하고 달콤한 이미지를 앞세운다. 미국의 화이트 진판텔이나 호주 및 뉴질랜드의 스위트 로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로제는 가장 실용적인 ‘푸드 와인’으로 통한다. 이들이 말하는 로제는 대개 드라이한 와인으로, 알코올 도수 또한 13~15%에 달한다. ‘골격’만 놓고 보면 레드 와인과 다를 바 없다.

로제 와인에 대한 모든 오해는 분홍빛에서 시작된다. 색이 진하면 달고, 연하면 가볍다는 통념 때문이다. 하지만 와인 색상은 당도가 아닌 포도 껍질과즙의 접촉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다. 포도 껍질과즙의 접촉 시간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산도와 미세한 탄닌이 형성되고, 가볍지만 밀도 있는 질감이 만들어진다. 레드나 화이트를 섞어 만든다는 오해와 달리, 로제 와인의 양조 과정은 레드 와

인과 같다. 그르나슈나 시라 같은 붉은 품종을 사용하되, 원하는 분홍색이 나오면 포도 껍질을 분리하기 때문에 붉은빛이 아닌 장밋빛을 띤다. 덕분에 로제는 붉은 포도의 보디감과 구조감을 갖추면서도 한결 부드럽다.

로제의 기준이 된 이름

로제 와인은 와인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다. 기원을 언급하려면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껍질을 담가두는 과정인 침용이나 강한 압착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와인이 지금의 로제처럼 연한 붉은빛을 띠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로제 와인이 곧 와인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로제의 진면목을 확인하려면 그 기준이 된 산지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로제의 표준을 세운 곳은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를 따라 길게 펼쳐진 프로방스Provence다. 니



스와 마르세유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언덕과 구릉이 완만하게 펼쳐지는 이 지역은 생산하는 와인의 약 90%가 로제다. 강한 햇빛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 ‘미스트랄’은 공기 중 습도를 낮춰 포도를 건강하게 익게 만든다. 석회질과 자갈이 섞인 토양은 배수가 원활하고, 지열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며 와인에 자연스러운 산도와 미네랄을 더한다. 연한 핑크빛과 드라이한 질감, 허브와 시트러스의 아로마가 어우러져 프로방스 로제의 전형이 완성된다. 스타일의 차이는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포도와 양조 방식에서 비롯된다. 껍질과의 접촉 시간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같은 프로방스 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코트드프로방스 Côte de Provence가 산뜻한 스타일을 대표한다면, 방돌Bandol은 훨씬 더 묵직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프로방스 서쪽과 맞닿은 프랑스 남부 론밸리에 위치한 타벨Tavel은 로제 와인만 생산하는 보기 드문 지역이다. 내륙의 강렬한 햇빛과 건조한 토양은 색이 짙고 구조감이 뛰어난 로제를 빚어낸다. 한편 프랑스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르고뉴의 마르사네Marsannay가 자리한다. 이곳의 로제는 서늘한 기후 속에서 피노 누아의 섬세함을 끌어내며, 우아하고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혼합해 로제 와인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인 산지가 있다. 바로 샹파뉴Champagne다. 이곳의 로제 샴페인은 높은 산도와 미네랄을 바탕으로 피노 누아, 피노 뫼니에, 샤르도네를 블렌딩해 복합적 구조를 완성한다. 숙성을 거친 로제 샴페인은 효모의 고소한 풍미와 과일 향이 겹치며 프리미엄 스파클링의 정수를 보여준다.

미식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올라운더

로제 와인은 5월부터 한여름까지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무더운 날씨에 타닌의 압박이 느껴지는 레드 와인은 다소 버겁고, 화이트 와인은 육류나 양념 강한 요리와 견주기에 풍미가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로제는 화이트의 산도와 레

드의 구조를 동시에 갖춰 해산물과 그릴 요리, 바비큐는 물론 향신료가 강한 이국적 음식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시간을 가리지도 않는다. 식사 전 입맛을 돋우는 식전주부터 가벼운 오찬, 육류 중심의 저녁 식탁까지 무리 없이 스며든다. 미식 관점에서 로제는 가장 실패율이 낮은 전천후 선택지다. 한식과의 궁합도 기대 이상이다. 삼겹살처럼 기름진 요리에서는 로제의 산도가 지방의 느끼함을 씻어내며 입안을 정돈하고, 제육볶음이나 비빔밥처럼 고추장 베이스의 매콤한 음식과 만나면 풍부한 과일 향이 자극적인 매운맛을 부드럽게 완화한다.

그렇다면 어떤 로제를 골라야 할까? 레이블의 원산지만 확인해도 스타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프로방스라면 드라이한 로제의 정석을, 타벨이라면 묵직한 보디와 집중도 높은 풍미를 기대할 수 있다. 빈티지 역시 중요한 지표다. 대개의 로제는 신선한 과일 향과 산도가 생명이기에 출시 후 1~2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방돌이나 타벨처럼 보디감이 풍부한 와인은 시간을 두고 숙성의 미학을 즐겨도 괜찮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품은 와인

와인은 종종 남자에 비견된다. 한국 남성이 선호하는 묵직한 보디감의 레드가 근육질의 ‘테토남’ 같다면, 섬세한 화이트나 라이트한 보디감의 레드는 부드러운 ‘에겐남’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과한 근육으로 슈트 핏을 망치는 남자처럼 힘이 넘치는 타닌은 때로 와인의 정교함을 가리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로제 와인은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낸다. 로제를 남성에 비유한다면 단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남자’다. 유려한 핑크빛 외모로 다가와 섬세하게 어루만지되, 내면에는 레드 와인에 버금가는 단단한 힘을 품고 있다. 한마디로 외유내강형이다. 어떤 음식과도 무난하게 어울리니 성격이 둥글둥글한 호남好男과도 닮았다.

이쯤 되면 여성의 전유물이라 여기던 로제 와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분홍빛 뒤에 숨은 강인한 힘을 알아본 당신에게 로제는 그 어떤 와인보다 듬직하고 세련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마침 로제의 계절, 여름 아닌가. ●



1 인비보 × 사라 제시카 파커 로제
할리우드의 아이콘 사라 제시카 파커와 인비보 와이너리가 함께 만든 프로방스 로제 와인. 은은하게 퍼지는 과일 향 위로 신선한 미네랄 터치가 더해지고, 생동감 넘치는 산미가 이어진다.

2 이기갈 타벨 로제
프랑스 론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이기갈이 빚은 드라이 로제로, 자두와 체리 및 딸기의 풍미에 장미꽃 향이 우아하게 얹힌다. 묵직한 보디감과 경쾌한 산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길고 부드러운 여운이 오래 남는다.

3 폴 로저 로제
포도 수확이 특별히 좋은 해에만 만들 수 있는 로제 샴페인. 우디 향과 레드 와인을 연상시키는 묵직한 질감, 은은한 단맛, 선명한 산도와 강한 구조감이 복합적으로 얹힌다.

이토록 풍성한 맛의 세계, 잎채소

비슷해 보이는 잎채소의 미묘한 맛의 차이를 알면 입맛에 꼭 맞는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
맛별로 구분한 잎채소 종류와 한 끼 멋진 식사가 되는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한다.

Editor_ 한소영 Photo_ 게티이미지뱅크, 언스플래시 Reference_〈샐러드의 기초〉(김은희 지음, 맛있는책방 펴냄)



샐러드의 중심을 이루는 잎채소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샐러드도 든든한 한 끼 메뉴로 자리 잡았다. 샐러드는 과일과 견과류 및 육류와 해산물까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지만, 채소는 샐러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다. 특히 잎채소는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해 샐러드의 주재료가 된다. 요즘에는 이름이 낯선 새로운 잎채소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그래서 각각 차이를 모르면 무얼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한다.

씹을 때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의 잎채소는 생각보다 다양한 맛을 지니고 있다. 샐러드에는 기본적으로 중성적 맛을 지닌 채소가 많이 쓰이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은 대체로 소량 사용하는데, 직접 만들어 먹을 경우 선호하는 맛의 잎채소를 기억해두었다 맘껏 활용하면 좋다. 독특한 맛의 루콜라만 무쳐서 샐러드를 만들기도 한다. 즉, 잎채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샐러드 맛이 좌우된다. 자신의 잎채소 세계를 점점 넓혀가면서 샐러드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보자.

중성적인 맛



로메인 상추 Romaine Lettuce

단맛이 은근하게 나는 상추의 변종이다. 잎이 다소 단단한 편이라 식감이 아삭하고, 잘 흐물흐물해지지 않아 농도가 찢직한 시저 드레싱과 잘 어울린다.



롤로로사 Lollo Rossa

상추보다 쓴맛이 적고, 생김새는 적상추와 비슷하게 생겼다. 잎이 무척 얇아 보드라우며, 가장자리가 꼬불거려 샐러드에 화려한 모양을 더하기 좋다.



오크 상추 Oak Leaf

오크잎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흔히 '오크 상추'라 부른다. 맛은 녹색 상추와 비슷하며, 특별히 강한 맛이 없는 중성적 맛으로 샐러드에 자주 사용한다.

쌈쌀한 맛



치커리 Chicory

잎이 약간 질기고 쓴맛이 강하다. 쌈 채소나 무침으로도 많이 먹는다. 샐러드에 쓸 때는 잎을 3~4등분해서 소량 사용한다. 쓴맛을 잡아주는 달콤하거나 강한 맛의 드레싱이 잘 어울린다.



루콜라 Ruc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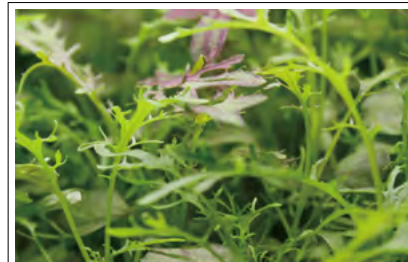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이 나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루콜라로만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쌈싸래한 맛이 식초·오일이 들어간 드레싱과 잘 어울린다. 카프레제에 곁들여서 먹기도 한다.



라디키오 Radicchio

약간의 쓴맛이 나서 '이탈리아 치커리'라는 별칭이 있다. 수분이 많지 않고 살짝 질긴 식감이 나며, 또 약간 쓴맛이 느껴지므로 샐러드에 소량 사용하거나 살짝 익혀서 사용한다.

매콤한 맛



레드 프릴 Red Frill

거웃잎의 한 종류로, 매콤한 맛이 가볍게 난다. 잎이 붉고 프릴(주름 장식)처럼 생겨서 모양이 예쁘다. 샐러드의 모양을 꾸미고 맛에 포인트를 내고 싶을 때 2~3장 정도 손으로 찢어 넣기도 한다.

신맛



소렐 Sorrel

소렐은 줄기가 붉으면 레드 소렐, 일반적 인 색이면 그린 소렐이라 부른다. 잎을 씹으면 짹짹 놀랄 만큼 신맛이 난다. 신맛이 강해 고기나 생선 요리에 얹으면 담백함에 상큼한 맛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

달콤한 맛



엔다이브 Endive

작은 배추 모양으로, 수분이 많고 달콤하며 아삭함이 뛰어나다. 잎을 한 장씩 떼어 내 접시에 담으면 색다른 분위기의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 잎을 빻거나 크래커 대신 사용해 카나페를 만들기도 한다.

앞채소를 활용한 초간단 샐러드



시저 샐러드 Caesar Salad

담백하고 고소한 미국식 샐러드다. 안초비가 들어가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의 시저 드레싱은 닭 가슴살과도 잘 어울리지만, 팬에 굽거나 데친 대하를 곁들여 먹어도 좋다.

재료

로메인 상추 70g, 닭 가슴살 1조각, 시저 드레싱 2큰술, 카놀라유 적당량, 소금·후춧가루·파르메산 치즈 약간씩

만드는 법

- 1 로메인 상추는 떼어내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냉장고에서 차게 보관한다. 로메인 바깥쪽 잎은 손이나 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잎은 모양을 그대로 살려 사용한다.
- 2 닭 가슴살은 굽기 10분 전 상온에 꺼내 소금을 골고루 뿌린다. 중불로 달군 팬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앞뒤로 3분씩 노릇하게 구운 후 185℃ 오븐에서 약 5분 더 익힌다. 닭 가슴살의 두께 정도에 따라 굽는 시간을 조절한다. 닭 가슴살을 구울 때는 카놀라유를 두르고 허브를 올려 향이 배어나게 요리해도 좋다. 이때 허브는 너무 센불에 타지 않게 주의한다.
- 3 믹싱 볼에 로메인 상추를 담고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살짝 버무린다.
- 4 ③을 접시에 담고 구운 닭 가슴살과 시저 드레싱을 얹은 후 파르메산 치즈를 뿌려 마무리한다.

판차넬라 샐러드 Panzanella Salad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서 유래한 샐러드로, 구운 빵과 토마토가 들어간다. 바게트를 활용해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바게트와 앞채소 등을 먹기 좋게 잘라 버무리는 게 특징이다.

재료

바게트 20cm 1개, 셀러리 1대, 주키니 ½개, 파프리카 ½개, 로메인 상추와 롤로로사 30g, 비네그레트 2큰술, 방울토마토 또는 오븐 드라이 토마토 5개, 올리브유 적당량,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 1 바게트는 2cm 크기의 큐브로 썰어 믹싱 볼에 담고 소금, 후춧가루, 올리브유를 소량 뿌려 버무리고 175℃ 오븐에서 5~7분간 구운 후 꺼내 식힌다.
- 2 셀러리는 겉면의 섬유소를 제거한 다음 어슷하게 썬다. 주키니는 씨를 제거하고 2cm 크기의 큐브로 썰어 끓는 소금물에 1분 30초 데쳐 얼음물에 식힌다. 파프리카도 비슷한 크기로 자른다.
- 3 앞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썬다.
- 4 믹싱 볼에 모든 채소를 담고 소금,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 버무린다. 여기에 바게트 썬 것과 비네그레트를 넣어 살살 버무리 마무리한다.



루콜라 샐러드 Rucola Salad

비네그레트는 오일에 식초를 섞어 만드는 산미 강한 드레싱인데, 씹쓸한 루콜라에 곁들여 먹으면 풍미를 더한다. 독특한 색깔을 자아내는 구운 비트를 활용해도 좋다.

재료

비트 중간 크기 1개, 루콜라 30g, 리코타 치즈 50~100g, 비네그레트 30~45ml, 다진 허브 적당량,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 1 비트는 씻어 오븐 팬에 쿠키 포일을 깔고 소량의 물과 소금을 넣은 후 껍질째 쿠키 포일로 감싸 175℃에서 1시간 정도 굽는다. 오븐 대신 물에 삶을 경우, 물에 소금을 조금 섞고 25분 정도 익힌다.
- 2 비트가 식으면 껍질을 벗긴다.
- 3 루콜라는 소금, 후춧가루에 버무리 접시에 올린다.
- 4 ②의 비트에 시트러스 비네그레트를 뿌려 섞은 후 루콜라 위에 올린다.
- 5 ④에 리코타 치즈를 얹고 다진 허브를 뿌려 마무리한다. 구운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여도 좋다.



엔다이브 샐러드 Endive Salad

꽃봉오리처럼 생긴 엔다이브는 잘게 썰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잎을 통으로 쓰면 더 화려한 모양의 샐러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재료

엔다이브 2개, 마요네즈 2큰술, 씨겨자 1작은술, 메추리알 4개, 다진 허브 적당량,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 1 냄비에 메추리알과 찬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2분 후 불을 끄고 2분 정도 그대로 둔다. 찬물에 식혀 껍질을 까서 먹기 직전에 반으로 가른다.
- 2 엔다이브는 잎이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어 밀동을 조금씩 자르면서 잎을 조심스레 떼어낸다. 떼어낸 잎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 3 믹싱 볼에 엔다이브와 다진 허브, 소금, 후춧가루를 담고 살살 버무린다.
- 4 마요네즈와 씨겨자를 잘 섞은 후 배추를 버무리듯 ③의 엔다이브에 한 장 한 장 발라준다.
- 5 접시에 ④의 엔다이브를 담고 반으로 가른 메추리알을 중간중간 올린다. ●

음악적 사유에 대하여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리스트를 다시 읽고, 음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3년 만의 새 음반 〈리스트〉로 돌아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서정과 사색이 머무는 음악 세계로 초대한다.

Writer_ 강은진 Photo_ rohsh, Rowan Lee

질문을 품은 피아니스트

뜨거운 태양 아래 만물이 저마다의 결실을 향해 무르익어 가는 계절. 여름의 한가운데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TWO CHAIRS〉를 찾았다. 올봄, 3년 만에 발표한 새 음반 〈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트^{Liszt} 하면 대부분 눈부신 기교를 먼저 떠올린다. 피아노라는 악기가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인 작곡가. 그래서 그의 음악은 종종 강렬함과 압도적 에너지로만 기억된다. 그러나 선우예권이 이번 음반에 담아낸 리스트는 조금 다른 풍경에 가깝다. 정오의 태양보다 해 질 녘 노을을, 화려한 불꽃보다 오래 남는 잔향을 떠올리게 한다. 익숙한 명곡들 사이로 리스트의 서정과 사색을 비춘다.

“새 앨범을 통해 〈TWO CHAIRS〉 독자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음악은 제게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번 음반 역시 그랬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술이 주는 위로와 영감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음악이 〈TWO CHAIRS〉 독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진심과 감동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우예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역시 2017년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이다.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기록은 그를 단숨에 세계 음악계의 주목 받는 연주자로 올려놓았다. 이후 뉴욕 카네기홀과 베를린 필하모니,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를 비롯한 세계 주요 무대에 섰고, 뉴욕 필하모닉과 뮌헨 필하모닉, 홍콩 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 행보를 이어왔다.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이라는 수식어 역시 그의 이름 앞에 자연스레 붙는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경력보다 음악 자체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수상과 성공의 기록보다 지금 어떤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지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한다. 그리고 그 질문의 현재형이 바로 리스트였다.





지난 5월, 선우예권은 음반 발매를 기념해 3년 만에 리사이틀 전국 투어를 펼쳤다. 사진은 공연 모습

건반 위에 피어난 리스트의 시적 서사

선우예권의 새 음반 <리스트>는 그의 음악적 고민과 해석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앨범에는 ‘사랑의 꿈’, ‘헝가리안 랩소디 제2번’ 등 널리 사랑받는 작품은 물론, 비교적 덜 알려진 곡과 편곡 작품들까지 고루 담겨 있다. 화려한 비르투오소의 면모에 가려졌던 리스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선곡이다.

“리스트에 관한 저의 관심은 화려한 테크닉 너머에 존재합니다. 저를 진정으로 매혹하는 요소는 지극히 서정적인 ‘위안’에서부터 ‘메피스토펠트 왈츠’의 극적이며 초월적 순간까지 리스트가 작품에 불어넣은 상상력의 깊이와 광대한 정서에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화려한 기교의 향연으로 리스트를 소개하는 대신, 그의 음악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표현력과 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것입

니다.”

그의 시선은 특히 리스트의 편곡 작품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선우예권은 리스트를 ‘소리의 시인’이라 부른다. 인간의 목소리가 지닌 본질을 간직하면서도 피아노라는 악기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새로운 음악적 서사를 열어젖힌 음악가라는 의미다.

“요제프 데사우어^{Josef Dessauer}의 가곡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작품이 지닌 내밀함과 진정성에 탄복했죠. 데사우어는 오늘날까지도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스트는 이 음악이 지닌 값진 의미를 확실하게 꿰뚫어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음반은 리스트의 기교를 증명하기 위한 연주집이 아니다. 선우예권은 작품 속에 스며 있는 인간적 감정과 상상력에 귀 기울이며, 초절기교의 거장 이면에 존재하는 깊은 서정과 사색을 조용히 들려준다.

시대를 기록하는 연주자의 침전과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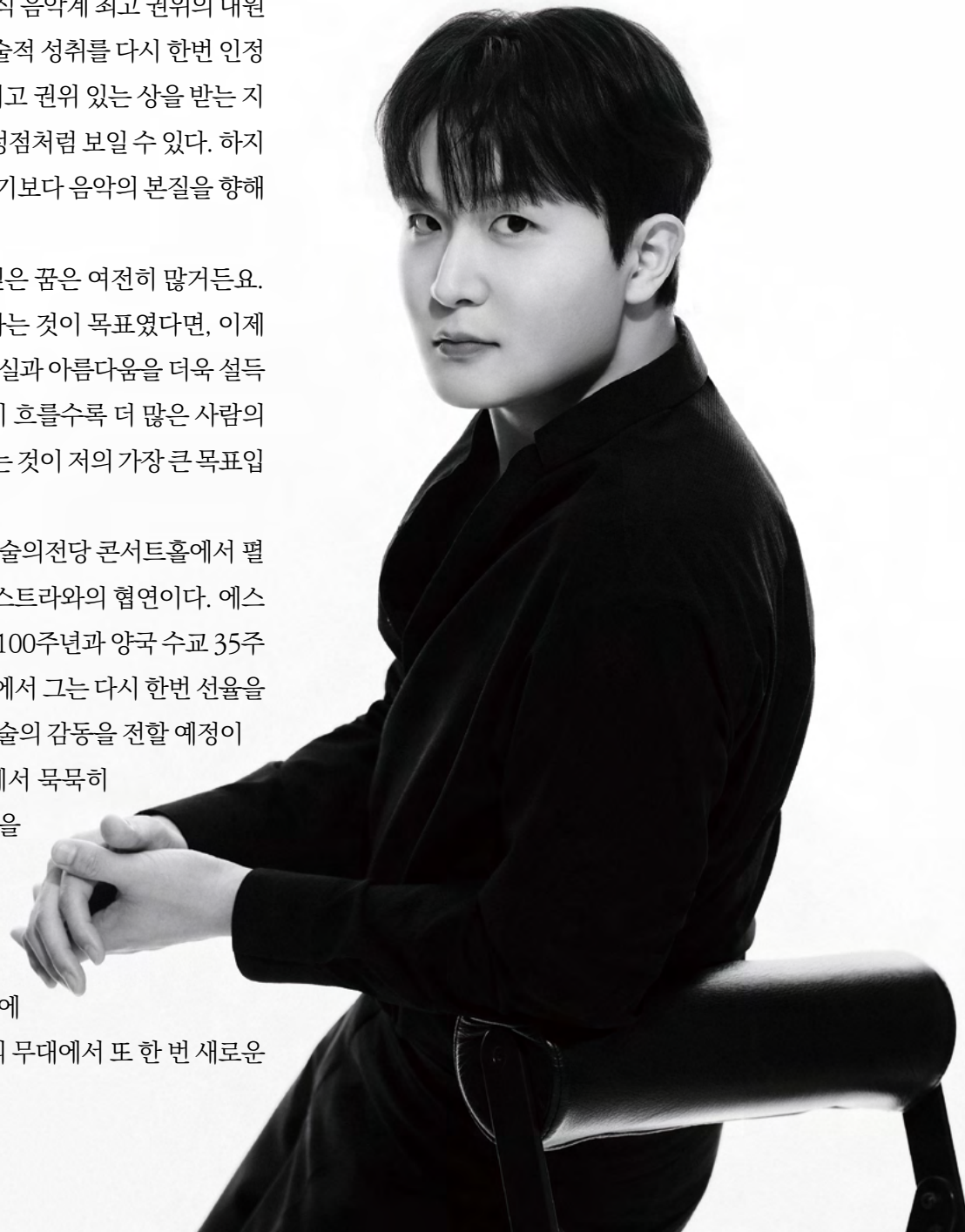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올해도 쉼 없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번 봄에 열린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는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 시간이었다. 김선옥, 조성진, 임윤찬과 함께 무대에 오른 그는 한국 클래식계가 오랫동안 꿈꿔온 특별한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공연 직후 ‘음악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장면’, ‘100년간 없을 피아노 사대천왕 무대’, ‘클래식 어벤저스’ 등 수많은 수식어가 쏟아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최근에는 국내 클래식 음악계 최고 권위의 대원 음악상 연주상을 수상하며 예술적 성취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세계 주요 무대를 누비고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지금은 누군가에게 예술가로서 정점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선우예권은 그 성취에 머물기보다 음악의 본질을 향해 더 깊이 침전하고 있다.

“연주자로서 지금도 이루고 싶은 꿈은 여전히 많거든요. 더 어렸을 때는 좋은 연주를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음악이 담고 있는 인간적 진실과 아름다움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하고 싶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의 다음 여정은 9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다.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창단 100주년과 양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무대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선율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우정과 예술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묵묵히 건반과 대화하며 자신의 내면을 다져가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더 깊은 음악을 향한 그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올가을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무대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울림으로 이어질 것이다. ●



화려한 기교의 거장 리스트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 지난 5월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발매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세 번째 스튜디오 음반 <리스트>는 화려함 너머에 숨은 깊은 울림을 담아낸다. 그는 이번 음반에서 리스트 음악에 깃든 서정과 사색을 섬세하게 펼쳐 보인다. ‘사랑의 꿈’부터 ‘현장’까지, 익숙한 명곡들 사이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리스트의 얼굴.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소장 가치 충분한 한 장의 음반이다.





여름엔, 평창대관령음악제 Music in Pyeongchang

한여름의 대관령. 푸른 산맥 사이로 울려 퍼지는 선율과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만난다.
자연과 음악이 빚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축제, 평창대관령음악제다.

Writer_ 강은진 Photo_ 평창대관령음악제 JONGHEE LEE

클래식에 깊이를 더하는 계승과 혁신

뜨거운 음악적 영감과 새로운 만남이 피어나는 곳. 강원도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무대로 펼쳐지는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올여름 다시 찾아온다.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실내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아시아 대표 클래식 축제다. 2004년 '자연의 영감'을 주제로 시작해 2016년 현재의 이름을 얻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았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무대와 차세대 음악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공연과 교육이 공존하는 클래식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정체성은 음악을 통해 세대를 연결하는 데 있다. 정상급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앙상블을 선보이는 한편, 대관령아카데미를 통해 젊은 연주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강효 초대 예술감독을 시작으로 정명화, 정경화, 손열음을 거쳐 현재 첼리스트 양성원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올해 음악제의 주제는 '계승과 혁신' Legacy and Innovation이다. 바흐에서 베토벤과 스트라빈스키, 현대음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과거의 유산이 오늘의 창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한다.

음악으로 완성하는 여름의 서사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대관령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질 개막 공연 '빛에서 불꽃으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통해 올해 음악제가 품은 계승과 혁신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이어 파벨 하스 콰르텟, 아오이 트리오, 크리스토프 쿠앵, 쓰쓰미 쓰요시, 한스 그라프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이 평창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국내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연주자들과 레퍼토리를 소개하며 음악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음악제 기간에는 19번의 콘서트를 비롯해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가족음악회', 대관령아카데미, 특강, 아티스트와의 커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처음 클래식을 접하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 공연 티켓은 공식 홈페이지와 NOL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

문의 033-240-1361



1.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평창대관령음악제. 사진은 지난 2025년 공연 모습
2.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차세대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국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3.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 첼리스트 양성원
4.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5. 2026년 평창대관령음악제 공식 포스터



BTS 픽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이돌 스타 BTS, 그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감의 원천을 들여다본다.

Editor_ 한소영 Photo_ 박히트뮤직, 한경DB

세계적 아이돌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서울 종로 구 광화문에서 화려한 컴백 무대를 펼칠 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BTS의 책장〉이라는 전시가 열렸다. BTS 멤버들이 읽고 추천한 한국문학을 비롯한 책 47권을 모아 전시하는 자리였다.

아이돌과 책? 서점가에서는 이미 이 조합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른바 ‘팬덤 독서’라는 선풍이 꾸준히 불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영상에서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이 포착

되면 팬들은 그 책을 따라 읽기 시작한다. 해당 책이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서점가에는 베스트셀러와 같은 의미로 ‘BTS셀러’라는 말까지 생겼다. BTS가 컴백 공연을 할 시기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는 ‘BTS 멤버별 추천 도서’라는 주제로 별도의 매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BTS의 멤버 RM이 추천한 랄프 왈도 에머슨의 〈자연〉을 비롯해 제이홉이 추천한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정국이가 추천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

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지민이 추천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진이 추천한 호아킴 데 포사다·레이먼드 조의 〈바보 빅터〉, 슈가가 추천한 손원평의 〈아몬드〉, 뷔가 추천한 헤르멘 헤세의 〈싯다르타〉 등이 진열됐다.

BTS를 이해하는 키워드

특히 RM의 책 사랑은 유명하다. 그가 요새 무슨 책을 읽는지는 이제 한국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 BTS 팬의 관심사다. RM의 본명을 딴 ‘남준의 서재’^{loonies Library}라는 웹사이트는 RM이 읽은 도서 목록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미국 대형 서점 반스앤드노블의 일부 매장은 RM의 추천 도서 코너를 마련한 적도 있다. 팬들이 그의 추천 도서 목록을 열심히 찾아 읽는 이유는 그가 읽는 책이 BTS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BTS의 앨범 〈윙스〉는 헤르만 헤세의 대표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삼았고, 노래 ‘세렌디피티’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 노래 ‘피 땀 눈물’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인용했다.

한국문학이 궁금해

K-팝의 인기가 한국문학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설 〈아몬드〉도 그중 하나다. 청소년층부터 성인층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아몬드〉는 어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BTS가 여행지에 챙겨 온 책

으로 단숨에 다시 서점가를 역주행했다. 〈아몬드〉는 ‘알렉시티미아’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증후군을 앓는 소년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내용의 성장소설이다. 엄마, 할머니와 셋이서 살고 있는 16세 소년 윤재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 책에서 설정한, 윤재가 앓는 병의 원인은 뇌에 있는 아몬드 모양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미신처럼 편도체가 아몬드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아몬드를 충분히 먹으면 많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윤재에게 어릴 때부터 아몬드를 먹인다. 이 책의 제목은 여기서 비롯됐다.

할머니와 엄마는 감정 표현의 공식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윤재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키워왔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이브에 윤재의 눈앞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 사건으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 병실에 누워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므로 독자들은 윤재가 느끼지 못하는 격한 감정들을 대신 느끼면서 소설을 읽어나가게 된다. 이런 윤재에게 끈이와 도라라는 또래 친구가 등장하면서 윤재는 우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깨달아간다.

〈아몬드〉는 일본에 번역 출간된 후 2020년 아시아 도서 최초로 ‘일본 서점 대상’ 번역 소설 부문을 수상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16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가슴 아픈 성장소설인 이 책은 BTS의 노래들과 겹치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

그 외 BTS가 읽은 한국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지음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로,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이제 한국문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되었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지음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김지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질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다.



〈나목〉박완서 지음

작가 박완서의 데뷔작이자 대표작. 한국전쟁 당시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담았다. 처음 쓰는 글이었음에도 습작 없이 단번에 장편 분량을 써낸 이 소설은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됐다.



© La Biennale di Venezia

베네치아 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초청받은 요이 작가의 '숨 오케스트라'

무덤 위의 예술, 비엔날레를 삼킨 소음

La Biennale di Venezia

새로운 예술은 늘 세상의 질서가 흔들릴 때 탄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계속되며 냉전 이후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그 변화의 조짐은 세계 최고 권위 국제 미술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고 있다.

Editor_ 김보라 한국경제 <아트페> 편집장 Photo_ 베네치아 비엔날레

올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본전시의 행사 주제는 ‘단조^{In} Minor Keys’로, 시끄러운 외침 대신 잔잔한 목소리에 귀 기울
이겠다는 뜻이다.

올해 61회를 맞은 비엔날레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정치 논쟁의 무대가 됐다. 가장 충격적 사건은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단이 개막 직전 전원 사퇴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상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베네치아 비엔날레 측은 결국 황금사자상을 폐지하고, 폐막일인 11월 22일 일반 관객 투표로 최우수 작가와 최우수 국가관을 뽑는 ‘관객상’을 신설해야 했다. 131년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관 전시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제로 구성한 한국관을 비롯해 여러 국가관이 정치적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다극화가 진행되는 흐름도 비엔날레에 그대로 반영됐다.

카타르는 ‘오일 머니’를 앞세워 자르디니 공원에 전통 아랍풍 문양의 공간을 마련했다. 엘살바도르는 1995년 한국관 건립 이후 30년 만에 주요 전시장 중 한 곳인 팔라초 모라에 국가관을 개설했다. 본전시에서도 그동안 현대미술계에서 존재감이 미약하던 중동·아프리카·남미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흑인 작가 집중 조명

본전시에서 만나는 첫 작품의 장르는 그림이나 조각이 아닌 문학이다. 본전시가 열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전시장 입구에는 푸른 천에 인쇄된 짧은 시 한 편이 걸려 있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너는 살아남아 내 이야기를 전하라.” 2023년 12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시인 레파트 알라리르가 죽기 직전에 쓴 시 ‘내가 죽어야 한다면’이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어인 단조^{短調}는 음악 용어에서 따왔다. 단조는 잔잔하고 슬픈 분위기를 만드는 음계. 비엔날레 측은 “서구 중심의 거대한 외침^{Major Key} 대신 그동안 소외돼 들리지 않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소수자가 내는 낮은 주파수의 목소리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이 단조는 추모의 의미를 담게 됐다. 총감독인 카메룬계 스위스인 큐레이터 코요 쿠오(1967~2025)가 개막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쿠오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자이츠 아프리카 현대미술관^{Zeitz MOCAA} 관장 출신으로, 2024년 12월 베네치아 비엔날레 사상 첫 아프리카 출신 여성 총감독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비엔날레 측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쿠오가 남긴 기획안과



© Thaddeus Ropac

산조르조마조레섬에서 열리는 게오르크 바젤리츠 유작전 <황금빛 영웅> 전시 전경. 금색 배경 위에 아내 엘케의 모습이 거꾸로 그려져 있다.



© La Biennale di Venezia

산마르코 광장의 16세기 건물 프로쿠라티에에서 7개월간 열리는 이우환 작가 회고전 전경



© La Biennale di Venezia

베네치아 비엔날레 그리스관 전경

작가 명단을 그대로 실현하기로 했다. 그가 선택한 5명의 자문단 ‘라 스콰드라 디 코요(코요의 팀)’가 1년간 고인의 기획을 실현했다. 쿠오가 생전 기획서에 남긴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재즈 합주다. 여러 악기가 따로 각자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자유 재즈 앙상블처럼 작품을 배치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크리올 정원’이다. 17세기 카리브해 흑인 노예들이 플랜테이션 노동이 끝난 뒤 야간에 몰래 가꾸던 작은 텃밭을 가리킨다. 좁은 땅에 수십 종의 식물이 뿔뿔이 들어선 노예들의 정원은 식민지 폭력에 맞선 저항과 회복의 상징이 됐다.

흑인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니 모리슨도 쿠오에게 영감을 줬다. 모리슨은 1986년 발표한 에세이 〈기억의 장소 The Site of Memory〉에서 “모든 물은 완벽한 기억을 갖고 있어 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작가도 마찬가지다”라고 썼다. 주최 측은 이를 거대한 배너에 인쇄해 아르세날레 한복판에 걸었다. 공식 역사에서 지워진 흑인의 목소리를, 작가들이 이번 전시에서 작품을 통

해 되찾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시 작가 중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건 흑인이다. 본전시에 참여한 111개 팀 중 아프리카 출신이 20%에 이른다.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자르디니 공원 입구에 배치한 마리아 마그달레나 캄포스폰스의 ‘코요 쿠오와 토니 모리슨을 위한 목련 해부도’다. 죽은 큐레이터와 모리슨을 함께 그린 거대한 회화에 유리과 수지로 만든 목련 조각을 더했다.

세상의 소음, 전시를 뒀다

쿠오가 ‘조용한 듣기’를 표방했지만, 전시는 시작 직후부터 세상의 소음에 시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주원인이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작품 운송이 어려워지자 개막 직전 참가를 포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작가 개브리엘 골라이어스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다룬 작품을 선보이려 했지만, 정부가 이를 막았다. 결국 골라이어

스는 베네치아의 한 성당에서 별도 전시를 열어 작품을 공개했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오래 앉아 감상해야 하는 영상·미디어 작품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 현대미술의 주류가 영상과 미디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다. 이날 전시장에서는 대형 스크린 앞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영상·미디어 작품은 관람객의 시간과 집중력을 크게 요구한다. 이를 감안해 쿠오는 올해 참여 작가를 지난번(331개 팀)의 3분의 1 수준인 111개 팀으로 줄였다. 전시 동선 곳곳에 ‘오아시스’와 이름 붙인 쉼터를 배치한 것도 관람객이 작품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돕기 위한 배려다.

본전시에 출품한 한국 국적 작가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요이(본명 유용은)가 유일하다. 그의 영상 설치 작품 ‘숨 오케스트라’는 외신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제주 해녀의 호흡을 악보로 만들어 9명의 전문 퍼포머가 재현한 사운드와 영상 작품이다. 지난 비엔날레 본전시에 한국 작가로 이강승·김윤신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한국계 작가 중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마이클 주의 대형 설치 작품 ‘우리 주변에서 증발하는 것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20년 동안 직접 수집해온 갯고사리·성게·불가사리가 박힌 거대한 화석 돌판을 양팔저울처럼 생긴 철제 조각 위에 얹은 작품이다. 화석 안에는 진동을 소리로 바꿔주는 골전도 변환기가 들어 있어 관객이 귀를 가져다 대면 미세한 떨

림과 아득한 소리가 감지된다. 작가는 “내 작품은 자연·술·인간의 몸 사이 보이지 않는 관계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콜롬비아 작가 갈라 포라스 김은 아르세날레 내 응용미술관에서 영국 V&A 박물관과 협업 전시를 열었다. 박물관이 유물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작품의 생명을 죽이는지를 다룬 것. 대표작 ‘흔드는 사람들’은 V&A가 소장한 꼭두각시를 회화로 옮겨 그린 뒤 천장에 매단 작품이다. 관객이 위층에서 발을 구르면 진동으로 그림 속 인형이 흔들린다. 박물관에서는 손상 우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관해둔 인형이 작품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셈이다. 포라스 김은 “내 작품도 결국 박물관에 들어가면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년 여성, 2024년 이민자, 2026년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세부 주제만 바뀌었을 뿐 ‘소수자’라는 큰 화두가 계속 반복되면서 전시가 다소 식상해졌다는 것이다. 본전시 개막을 앞두고 별세한 쿠오 감독이 끝까지 작업을 마무리했더라면 더 완성도 높은 전시가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자르디니 공원과 아르세날레 두 곳에서 올해 11월 22일까지 열린다. 수상 도시 베네치아의 심장파 같은 옛 조선소 건물을 활용한 아르세날레에서 본전시와 함께 도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면, 바닷가 옆 평화로운 공원 자르디니에서는 여러 국가관을 감상할 수 있다. ●



자르디니 정원 한국관에서 열리는 ‘해방 공간’ 전시의 외관



폰타 델라 도가나에서 열리는 로나 심슨의 〈제3자〉 전시 중 ‘Tried by Fire’(2017)

치매 위험 줄이는 주거 공간 처방

우리가 사는 집의 공간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공간의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Editor_ 한소영 Photo_ 게티이미지뱅크, 언스플래시
Reference_ 〈뉴로테리아〉(손혜주 지음, 한국경제신문 펴냄)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기대 수명이 높아질수록 치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높아진다. 사람들은 흔히 선을 긋고 ‘정상인’과 ‘치매 환자’로 구분하려 하지만,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처럼 걸리는 게 아니다. 무려 20여 년간,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공간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오감을 통해 뇌에 영향을 준다. 벽지 색, 조명의 밝기, 가구의 각도, 바닥재의 모양 등 모든 것이 뇌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개입한다. 실제로 2025년 발표된 대규모 추적 연구는 공간이 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지 기능이 정상인 일반인 1만여 명을 9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시각적으로 잘 정돈된 집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12.5% 낮았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10년 뒤 나의 기억을 지킨다면 누구라도 공간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뇌를 지키는 데 굳이 큰 돈이나 거창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치매를 예방하는 공간은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일상의 집으로도 충분하다. 가구 배치를 조정하는 일 하나만으로도 뇌를 위한 실질적 처방이 될 수 있다.

분위기 | 미니멀리즘, 과하면 독

최근 유행하는 무채색 위주의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뇌 과학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권장하기는 어렵다. 시각적 자극이 지나치게 통제된 환경은 자칫 뇌의 감각을 둔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소재와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뇌의 시각 피질을 적절히 자극해 뇌 건강에 훨씬 이롭다. 공간 분위기를 너무 차갑고 매끄럽게 조성하는 건 피하는 편이 좋다. 대신 식물의 초록빛과 따뜻한 자연의 질감을 집 안에 들여보자. 일명 ‘바이오필릭(Biophilic)’ 디자인이다. 예를 들면 실내 마감재를 나무의 향기나 결, 돌의 질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이다. 이러한 자재에서 오는 기분 좋은 자극은 뇌세포 생성을 돕는 BDN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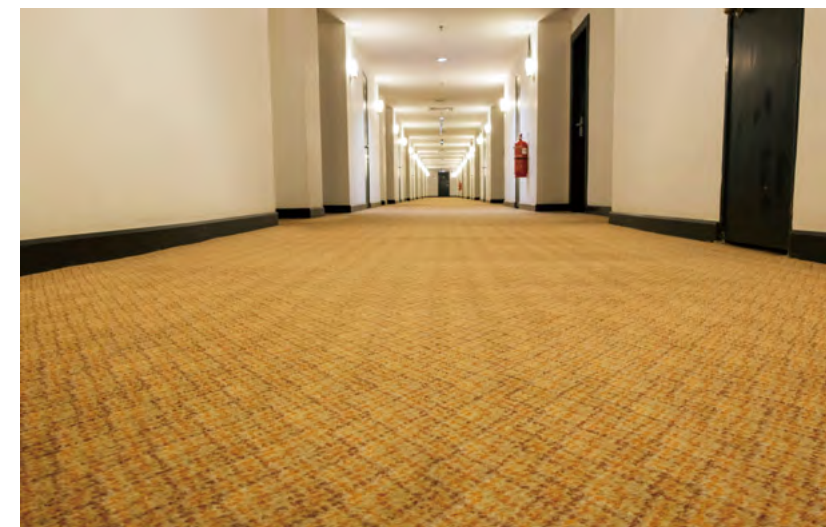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낮춘다. 지나친 미니멀리즘 대신 자연을 닮은 인테리어를 고민해보자.

색상 | 바닥은 어둡게, 천장은 환하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편안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이 닿은 바닥, 머리 위의 하늘, 그리고 건물 벽 등 사방의 면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뇌가 쉽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 공간도 마찬가지다. 뇌에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방법은 공간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잡아주는 것이다. 우리 눈과 뇌는 본능적으로 발밑이 묵직하고 머리 위가 가벼울 때 비로소 안심하고 안정된 상태에 놓인다. 게다가 노화로 시야가 흐려지면 바닥과 벽 및 천장의 색이 비슷하게 뭉개져 보이고, 공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 허공에 붕 뜬 듯한 막막함과 불안을 느낀다. 바닥재는 짙은 우드나 차분한 그레이 톤을 선택해 단단한 대지처럼 받쳐주자. 반대로 벽과 천장은 밝은 크림색이나 하늘색으로 마감해 탁 트인 개방감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감각적인 공간 연출법이다.



바닥과 벽 색상이 같은 복도. 오히려 시야가 더 혼란스럽다.



바닥과 벽의 적절한 대비가 공간의 윤곽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복잡한 패턴이 없는 파스텔 톤 벽이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크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간혹 위협적으로 들린다.



고개만 돌리면 공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실내



적절하게 배치한 의자는 훌륭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무늬 | 익숙하고 절제된 패턴 전략

인테리어를 할 때 흔히 화려한 벽지나 추상적 무늬의 바닥재로 장식해 단조로움이나 평범함을 탈피하고 싶어 한다. 지나친 미니멀리즘을 지양하는 건 좋지만, 뇌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이 장식들이 시각적 소음이 되어 뇌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너무 복잡하고 산만한 패턴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반면 익숙하고 절제된 패턴은 공간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다. 복잡한 꽃무늬 벽지보다는 무늬 없는 단색의 차분한 마감재가 시각적 혼란을 막고, 평온한 상태를 지켜주는 안전한 선택이다.

색상 또한 중요한데, 지나치게 어둡거나 강렬한 원색보다는 중간 밝기의 부드러운 색상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흙을 닮은 따뜻한 베이지, 나뭇결이 살아 있는 연갈색, 숲을 연상시키는 차분한 올리브그린이나 맑은 하늘색 등이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소리 | 소음 먹는 공간의 조성

현대인의 뇌는 24시간 과부하 상태다. 여기에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같은 소음이 크게 작용한다. 귀를 찌르는 생활 소음으로 집에서조차 뇌는 쉬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간의 소음을 관리하는 것은 곧 내 뇌의 휴식을 돕는 일이다.

집은 뇌가 외부 자극을 끄고 쉴 수 있는 아늑한 ‘동굴’이 되어야 한다. 핵심은 집 안에서 소리가 웅웅대며 맴돌지 않게 벽이 소리를 부드럽게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실 벽에 딱딱한 액자 대신,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패브릭 소재의 그림을 걸거나 아트 월을 꾸며보자. 털이 짧은 카펫을 까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다. 공사를 하지 않고 집 안 소품을 살짝 바꿔도 소리의 반사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울림을 막아준다. 또한 대화도 편안해지고 공간에 차분한 깊이감이 생긴다.

tip 지친 뇌를 위해 이것만은 지키세요!

1. 침대 머리맡은 기계와 멀리 두기 소음이 심한 세탁실은 침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야 한다. 침실 벽 너머가 세탁실이라면 벽 쪽에 옷장이나 책장을 두어 소음을 한 번 더 차단해주는 ‘가구 방음벽’을 세우자.

2. 초인종 볼륨 한 단계 낮추기 갑작스러운 “딩동” 소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을 뛰게 한다. 월패드(인터폰) 설정을 확인해 벨 소리 크기를 한 단계만 낮춘다.

3. 도어 클로저 설치하기 문이 갑자기 광 닫히는 소리는 위협적으로 들린다. 문이 광 닫히는 이유는 속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 상단에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면 문이 천천히 닫히게 할 수 있다.

구조 | 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하기

처음 가본 낯선 건물에서 길을 잃고 당황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은 뇌를 긴장시킨다. 반면에 내가 가야 할 곳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수록 집은 ‘설명서가 필요 없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핵심은 공간의 시각적 연결성을 만드는 것이다.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들이 시각적으로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거실에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보이고 창밖의 밝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면 우리 뇌는 그 즉시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 거실, 식당, 주방의 경계를 허무는 ‘오픈 LDK(Living Dining Kitchen 구조)’를 활용하자. 고개를 돌렸을 때 목적지가 훤히 보이도록 시야를 답답하게 가로막는 벽이나 덩치 큰 가구는 과감히 치우는 것이 좋다.

가구 | 의자 하나로 ‘나만의 안식처’ 만들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줄곧 마주해야 한다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뇌는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집중 모드’와 멍하니 휴식을 취하며 정보를 정리하는 ‘디폴트 모드’를 오가야만 비로소 건강한 균형을 찾는다. 이를 위해 꼭 거대한 서재 같은 개인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거실

의 가장 밝은 창가, 또는 가장 아늑한 구석에 1인용 안식처를 만들어보자. 창가에 의자를 하나 두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의자의 방향을 중앙을 과감히 등지고 창문 쪽으로 향하게 놓는 것이다. 의자는 딱딱하게 고정된 것보다는 몸의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앉았을 때 기분 좋은 탄성이 느껴지는 암체어가 적당하다. 그 옆에 키 큰 초록 식물을 두면 완벽하다.

관리 | 정리하고 수선하기

무질서한 공간은 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이것이 뇌 속에서 벌어지는 ‘신경 경쟁(Neural Competition)’ 때문임을 밝혀냈다.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은 시야가 혼잡하면 여러 자극에 주의를 끌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억제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물건이 잘 정돈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신경 경쟁이 줄어들어 뇌의 한정된 인지 자원을 중요한 곳에 온전히 쓸 수 있게 된다.

잘 설계된 공간은 고갈된 뇌의 에너지를 다시 북돋우는 배터리 역할을 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선택 아키텍처(Choice Architecture)’라 부른다.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공간을 뇌 친화적으로 바꾸면 뇌가 매 순간 감당해야 할 긴장을 공간이 대신 짊어지게 된다. 좋은 공간은 훌륭한 의사나 다름없다. ●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1540 Broadway, 38th floor, New York, NY 10036, USA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02, Level 21,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0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첸나이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Pyay Road, M Tower, No.527, 15th Floor, Unit No.15- 01, Kamayut, Yangon Regi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팔라렐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폴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사무소



WEALTH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전문가로부터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와 부에 대한
혜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사는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랜드마크 TWO CHAIRS W 잠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변화하는 잠실의 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하며 자산가의 미래를 설계할 우리은행의 열 번째 자산관리 특화 거점, TWO CHAIRS W 잠실이다.

Writer_ 강은진 Photo_ 박충렬



석촌호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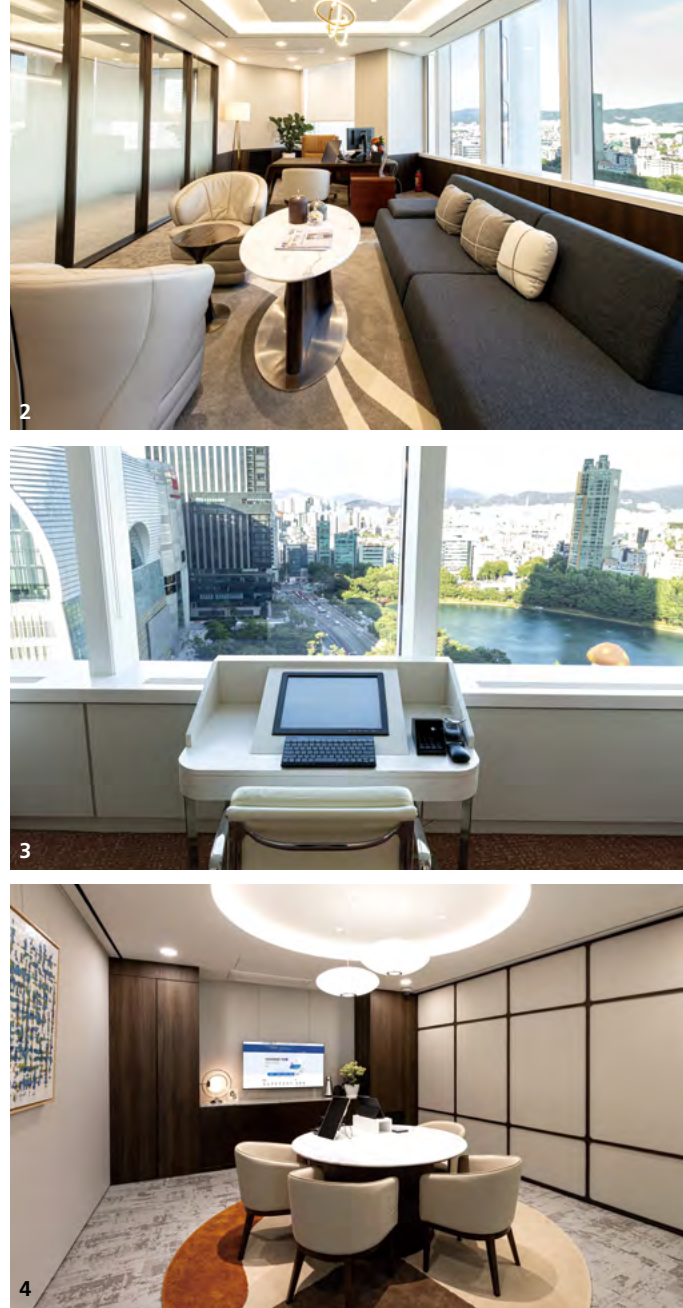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잠실의 비상

서울의 지도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갤러리아팰리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전통적인 고급 주거 단지에 더해 최근 잠실르엘과 잠실래미안 아이파크 입주가 이어지면서 잠실 일대는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자산가 밀집 지역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시그니엘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 리치 Young Rich 고객층과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를 내린 전통 자산가가 공존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부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부의 규모보다 부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산 증식에 집중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상속과 증여, 가업승계, 법인 자금 운용,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부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요구하는 자산관리의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6년 5월, 롯데월드타워에 열 번째 자산관리 특화 채널 TWO CHAIRS W 잠실을 개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 등지를 튼 TWO CHAIRS W 잠실은 변화하는 잠실의 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서울 동남권 자산관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라이빗한 자산의 쉼터

TWO CHAIRS W 잠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미학적 여유다. 롯데월드타워 12층에 자리한 센터는 통창 너머 석촌호수의 동호와 서호, 매직아일랜드까지 한눈에 담기는 파노라마 뷰를 자랑한다. 이러한 공간적 강점은 단순한 조망에 그치지 않는다. TWO CHAIRS W 잠실은 시그니엘의 영 리치 고객부터 대단지 아파트의 전통 자산가까지, 서로 다른 투자 성향과 자산관리 니즈를 가진 잠실 고객들을 아우르기 위해 공간 구성에 각별한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독립형 상담실은 물론, 라운지와 세미나실 등 각각의 공간은 ‘자산과 가문의 승계’라는 중요한 문제를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은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선사한다. 자산관리 서비스가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고객의 삶 전반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공간인 셈이다. 이곳에서는 세무·부동산·법률 분야의 본점 전문가를 초청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 강좌와 골프 원 포인트 레슨 등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롯데월드타워 12

층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 같은 서비스는 고객 개개인의 관심사와 삶의 방식까지 고려하는 TWO CHAIRS W 잠실만의 자산관리 철학을 보여준다.

검증된 PB가 완성하는 원 팀 자산관리

잠실의 자산가들은 시장을 읽는 기민한 안목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수적 역량을 동시에 요구한다. 고객마다 자산 구조와 세무 이슈, 승계 계획이 제각기 다르기에 획일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TWO CHAIRS W 잠실은 이러한 고객의 복합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은행 내에서도 손꼽히는 자산관리 전문가인 이지애 센터장과 이혜민 PB지점장, 김설희 PB팀장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들은 ‘원 팀^{One Team}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초대 센터장을 맡은 이지애 센터장은 롯데월드타워 금융센터와 TC프리미엄청담, TCW청담 및 TCW압구정 등 우리은행의 핵심 자산관리 채널을 두루 거치며 고객 자산가 자문 경험을 축적해온 인물이다. 투자와 세무, 부동산을 아우르는 복합 상담 역량은 변화하는 잠실 자산시장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은퇴 및 재무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혜민 PB지점장과 차세대 PB로서 시장 트렌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김설희 PB팀장이 힘을 보태며 팀의 전문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본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머물지 않는다. PB가 고객의 핵심 니즈를 먼저 파악하면 세무·부동산·법률 전문가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낸다. 분야별로 파편화된 정보를 조율해 고객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TWO CHAIRS

W 잠실이 지향하는 원 팀 자산관리의 본질이다.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금융 지평

자산관리 시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자산 증식과 승계, 세무와 부동산, 그리고 국내외 투자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고객 스스로 해답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PB의 역할은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자를 넘어 고객의 인생 전반을 설계하는 종합 자문가로 진화하고 있다. TWO CHAIRS W 잠실이 지향하는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롯데월드타워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는 원 팀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이다.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고객의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고, 종합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원스톱 시스템 역시 TWO CHAIRS W 잠실의 경쟁력이다. 단순히 상품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과 나란히 앉아 삶과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 이는 TWO CHAIRS가 오랜 시간 지켜온 자산관리 철학이기도 하다. 이제 잠실은 전통적 부촌의 안정성과 신흥 거점의 역동성이 공존하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자산관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TWO CHAIRS W 잠실은 이러한 잠실의 부와 함께 성장하며 자산의 증식과 승계라는 금융의 본질은 물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가장 먼저 고민을 나누고 싶은 사람, 가장 먼저 솔루션을 찾고 싶은 파트너. TWO CHAIRS W 잠실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잠실 지역 자산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1. 이지애 센터장을 중심으로 모인 TWO CHAIRS W 잠실 핵심 멤버들
2.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만든 응접실
3. 초밀착 케어가 가능한 뱅킹 공간
4.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상담실



special interview

“수익률보다 솔루션이 중요한 시대,
최고의 조력자 될 것”

TWO CHAIRSW 잠실 이지애 센터장

Q. TWO CHAIRSW 잠실의 초대 센터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TWO CHAIRSW 잠실의 전신인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에서 PB팀장으로 근무했는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래된 고객들께서 “금의환향했다”며 반겨주실 때는 부듯하기도 했고요. 은행 생활의 고향 같은 곳인 만큼 설렘과 함께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Q. 고객 자산을 위한 통합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자산관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부의 이전’입니다. 고객층은 고령화되고 증여 시점은 점점 빨라지면서 세무, 부동산, 가업승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자문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상품 수익률만으로 선택받는 시대가 아니라, 변화하고 복잡한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Q.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PB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PB는 고객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급등락할 때 고객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고객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Q. PB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나 상담 사례가 있으신가요?

한 고객님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뒤 배우자분과 함께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객님이 배우자분께 “믿을 수 있는 PB이니 앞으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분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경험

을 통해 신뢰야말로 PB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Q. TWO CHAIRSW 잠실 센터장으로서 목표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잠실은 전통적 부촌과 신형 고급 주거 단지가 함께 성장하며 고객 자산가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TWO CHAIRSW 잠실 역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잠실을 대표하는 자산관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찾는 자산관리 센터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



TWO CHAIRSW 잠실 핵심 PB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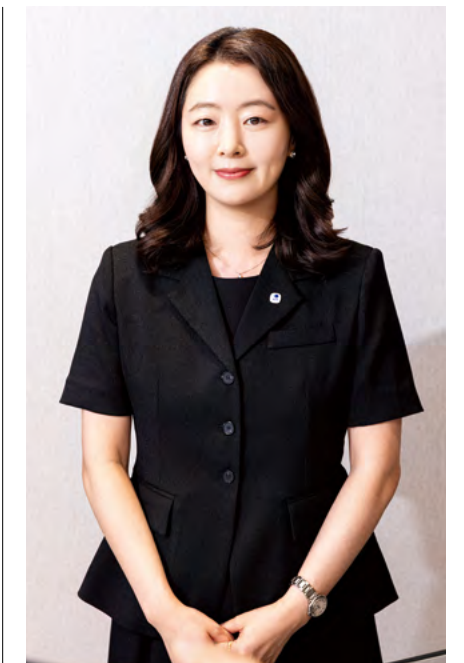
이지애 센터장

- PB/FA 경력 14년
- TC프리미엄청담/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PB팀장
- TCW청담/ TCW압구정 PB지점장 역임
- PB/FA 우수 직원 7회 수상
- AFPK(재무설계사)



이혜민 PB지점장

- 자산관리 및 FA 경력 8년
- 전)고덕금융센터 근무
- PB/FA 우수 직원 10회 수상
- 은퇴설계전문가 자격 보유
- 여신전문가 과정 수료



김설희 PB팀장

- 자산관리 및 PB 경력 7년
- 전)TCW청담/ TCP잠실 PB팀
- 차세대 PB Fast Track 수료
- CFP, AFPK 보유



AI 투자 확대와 고금리의 힘겨루기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 중인 반도체의 견인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약한 내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공존한다. 고유가의 고착화로 고금리 시대의 서막이 본격화되는 지금, 하반기 코스피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

Writer_ 최진호(우리은행 WM상품부 Economist) Photo_ 프리픽, 한경DB

상반기 숨 가쁘게 달려온 코스피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주가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를 논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 지표가 거론된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 지표는 PER^{주가수익비율}이라는 것과 EPS^{주당순이익}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PER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주가의 밸류에이션 혹은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는 PER과 EPS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주가는 기업이익^{EPS}이 늘어나거나, 혹은 밸류에이션^{PER}이 높아지면 상승할 수 있다. 기업이익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 하는 재무적 수치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반면 밸류에이션 혹은 멀티플이라는 것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즉 성장성^{growth}에 대한 금융시장이 부여하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당장 어떤 기업이 돈을 크게 벌지 못하고 있어도 미래가 촉망받는 회사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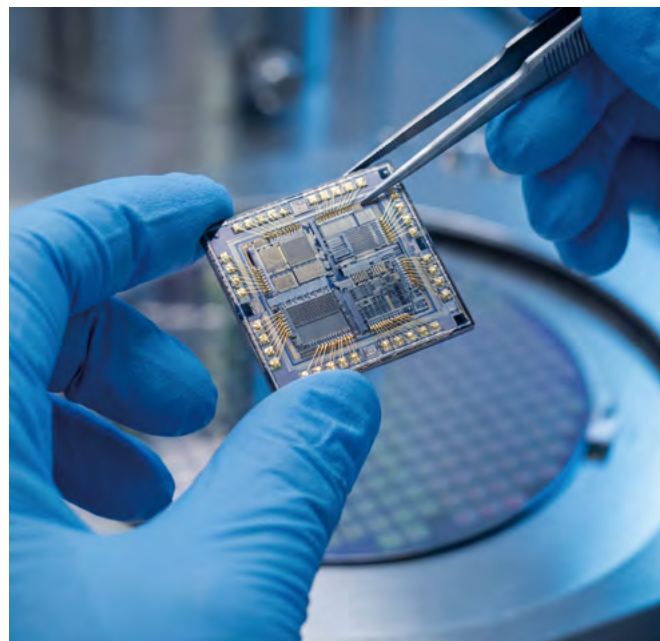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아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성장성은 다소 약하더라도 꾸준히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익과 성장성이 함께 높아지는 기업의 주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고금리의 서막이 시작될 하반기 매크로 환경

작년부터 코스피를 견인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 밸리의 핵심 요인은 기업이익 증가에 기반해왔다. PER로 보자면 미국 AI와 빅테크 기업이 몇십 배에 달하는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국내 반도체 big 2 기업은 PER이 5배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는 결코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만큼 적용받을 경우, 멀티플 확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다소 주관적, 즉 금융시장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인 컨센서스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컨센서스는 매크로 환경에 민감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반도체 기업들의 압도적 기업이익에 가려져 있던 매크로 환경이 슬슬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표적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고금리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이 반영되면서 4%대에 진입했다. 트럼프는 “전쟁만 종료되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내려올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 방향으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다. 전쟁 종료 시점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지표는 국제유가의 향방이다. 국제유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유가 선물곡선^{forward curve}을 살펴보면 향후 1년 내외의 원유물 구간은 여전히 80달러 수준에 걸쳐 있는 모습이다. 즉 올해 미-이란 전쟁이 앞으로 종전 수순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12개월 내 선물 가격은 전쟁 이전 유가(60달러 내외) 대비 약 20~30% 상승한 가격이고, 이는 분명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제유가 선물곡선이 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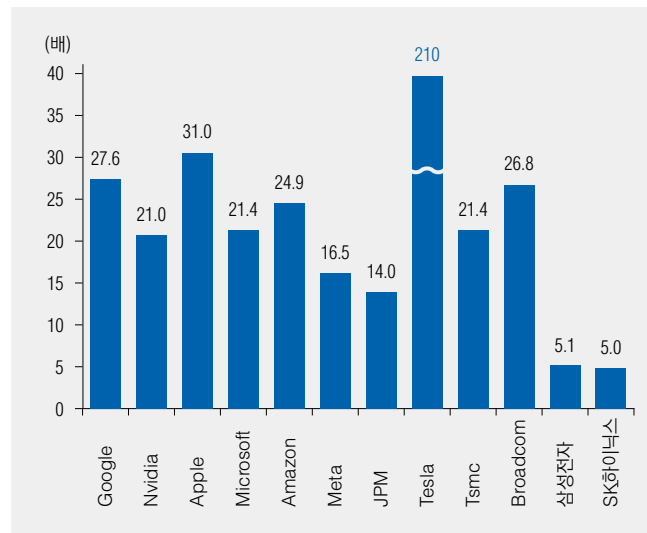


향^{backwardation}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 충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크기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유물 구간이 전쟁 이전 대비 약 20~30% 높아진 수준(80달러 내외)에서 고착화된다면 향후 미국 CPI는 현재 4%대에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유가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내 1~2회 인상될 가능성이 이미 메인 시나리오로 등극했다.

안정적인 반도체와 고금리 환경의 힘겨루기가 전개될 전망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주가의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PER과 EPS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금리는 PER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높은 PER을 적용받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조정받을 수 있고, 낮은 PER을 적용받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주가 조정의 부담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로벌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 어제오늘 알려진 얘기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은 작년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이익 성장이 매크로 불안을 잠식시킬 정도로 압도적이었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국내 반도체 big 2 기업 실적은 이미 회사단위^{firm level}의 성장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미시적 동인^{micro momentum}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 높아진 국제유가 충격으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전통 제조업은 여전히 미약하고, 미약한 내수에도 불구하고 공급충격발 인플레이션이 혼재되어 있는, 어울리지 않는 현상들이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거슬리는 것도 현실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밸류에이션 (12MF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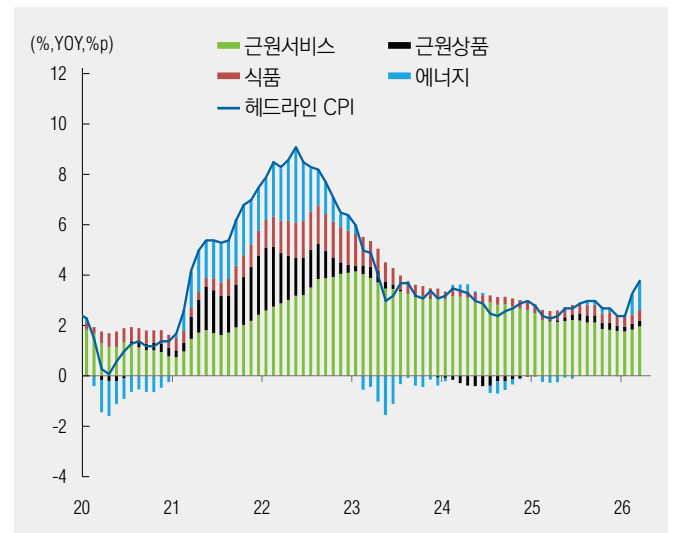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은행 WM상품부

반도체 이후의 주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간

하반기 코스피는 반도체 big 2 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 기업이익과 고금리라는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 사이에서 그 균형점 어딘가를 향해 갈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코스피 상승 패턴에서 보여왔듯이 압도적인 기업이익이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고금리라는 환경이 주가의 장애물로 부각될 것인지는 예단하기가 힘들다. 다만 2025년 대비 2026년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분의 업종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약 88%가 반도체 산업에 기인하고 있으며, 6월 수출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2/4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빛나는 반도체 덕분에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취약한 고리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러우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한국 실물경제에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일부 기업과 산업의 쏠림 현상이 이토록 심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불편함을 감추기가 힘든 것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부문별 상승 기여도



자료 Bloomberg, 우리은행 WM상품부

도 사실이다. 쏠림이 심한 모멘텀은 그 반작용도 클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파티가 아직 현재진행 중이지만, 주인공 대신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음의 주역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다. 하반기에 본격화될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투자자는 하반기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늠해보는데, 어떤 요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요인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 본 견해는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WM상품부
Economist



2026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관전 포인트

7월 말에 발표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유동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해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큰 변수들을 짚어본다.

Writer_ 함영진(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팀장) Photo_ 프리픽

세금·금리·전세·공급·유동성 등이 2026년 하반기 주택시
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시장은 서울
핵심 지역 중심의 국지적 상승과 지방 위축이 공존하는 구
조였다면, 하반기에는 부동산 세제개편과 기준금리, 전월
세 가격, 주택공급 속도라는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올해는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과 주택 임차 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는
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수는 오는 7월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외에도 재산

[표 1] 2026년 7월 발표될 부동산 세제개편(안) 추정

주요 예상(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 점진 상승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및 상생 임대인 제도 세제 혜택 축소 및 제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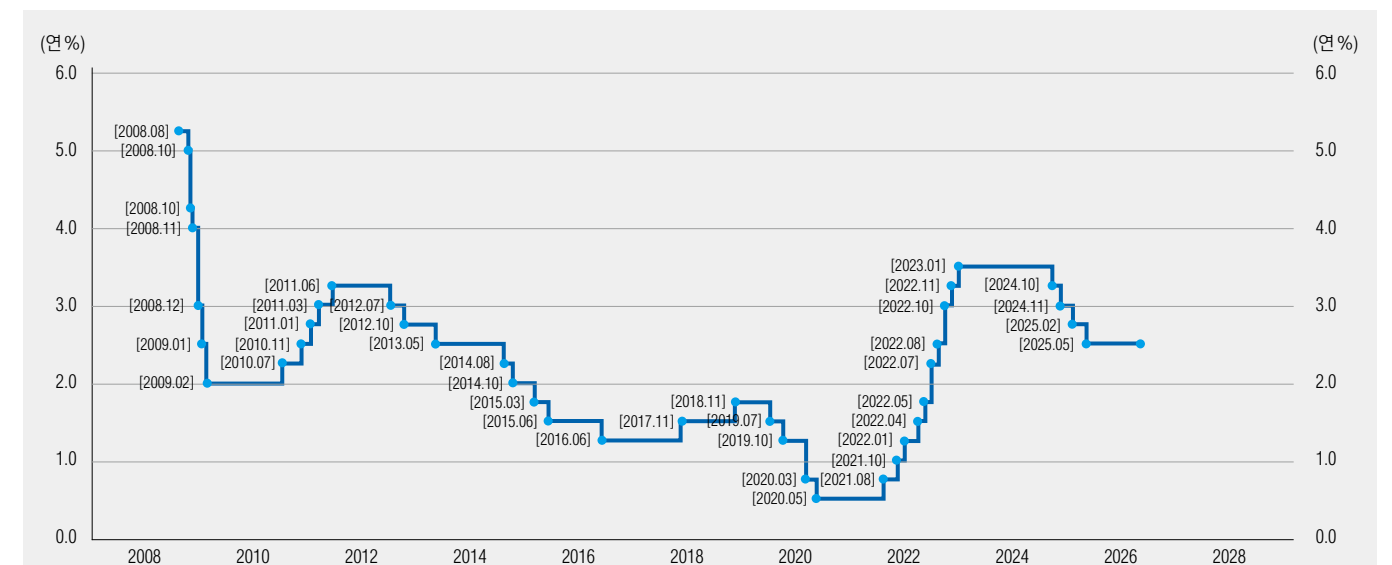
※상기 내용은 추정안으로 실제 정부 정책 발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과표상한
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거래세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의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유는 분명하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유지되면서 오
히려 매물이 잠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장에서도 거래세 부담이 높을수록 매도보다 버티
기가 늘었고, 이는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됐
다. 결국 정부가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보
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시장 유통
매물에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강화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 둔화 속 견조한 가격 상승이 나
타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 변수는 ‘기준금리’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낮췄다. 물가와 원·달러 환율, 가
계부채 관리가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
겠지만, 유동자금 급증과 물가상승 우려는 금리인상 전망
을 높이고 있다.

2022년 급격히 인상한 기준금리가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
을 불러왔던 것처럼, 금리인상은 서울 핵심 지역과 지방의

[표 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년 5월 기준)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초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 여력과 대기수요가 탄탄한 강남권과 한강 벨트 주거지, 전세가 상승과 매물 부족에 기인해 자가 이전을 꾀하는 서울 외곽 등지는 버티겠지만, 인구 감소와 미분양 부담이 큰 지방은 금리인상으로 타격이 따를 전망이다.

하반기, 가장 큰 변수는 임대차 시장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전월세 시장’이다. 사실 올해 하반기 시장의 가장 강한 변수는 임대차 시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와 현장 중개업소 사이에서 매매 전망은 엇갈리지만, 전셋값 상승 전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가의 하방을 지지한다. 주택 공급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한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의 매수 전환을 꾸준히 유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비용으로 인해 신규 공급(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이 모두 평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은 단기에 전세 가격이 안정되기 쉽지 않음을 뜻한다. 신규 주택 입주 감소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임대차 가격 불안과 매매가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2027~2028년 신규 아파트 입주 절벽 가능성이다. 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감소는 몇 년 뒤 실제 입주 신규 주택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단기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에 유통 매물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도 주요 변수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세수 확보와 다주택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경우 일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표 3] 2026~2028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전국	200,746	227,048	168,535
서울특별시	27,127	17,012	13,683
경기도	62,470	88,867	74,254
부산광역시	11,557	17,844	7,147
대구광역시	10,453	2,756	997
인천광역시	17,588	16,699	23,942
광주광역시	11,589	8,427	293
대전광역시	6,179	17,400	1,197
울산광역시	4,447	5,494	7,702
강원특별자치도	7,576	4,837	3,598
경상남도	7,466	2,473	8,312
경상북도	4,739	9,445	2,298
전라남도	4,381	6,606	1,338
전라북도	6,683	2,458	4,993
충청남도	10,474	12,276	8,972
충청북도	7,314	12,325	7,948
제주특별자치도	703	2,129	96
세종특별자치시	0	0	1,765

자료 부동산R114, 단위 원 ※상기 수치는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같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들면 시장은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나는 세제 메리트 감소로 인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 철회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임대주택 공급 감소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생 임대인 제도의 폐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주는 제도

최근 몇 년간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비용으로 인해 신규 공급(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이 모두 평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은 단기에 전세 가격이 안정되기 쉽지 않음을 뜻한다. 신규 주택 입주 감소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임대차 가격 불안과 매매가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데, 최근 몇 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시장 매물 제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다. 집주인으로서의 굳이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전세 공급 감소와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미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상생 임대인 제도 변화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변수다.

결국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단순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로 정의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개연성이 높다. 부동산 세금과 금리, 주택공급 속도와 임대차 가격 흐름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역별·상품별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서울 핵심 지역과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자산가치 방어 성격이 강할 수 있지만, 지방 등 수요 및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압력이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시장은 이제 ‘입지가 좋고 희소성 있는 자산만 살아남는 시대’로 이동 중이다.

주요 변수에 따른 주택시장 자산관리법 5

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자산관리 행동 요령도 달라져야 한다. 첫째, 금리인하 기대만으로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전략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리인하는 제한적이

고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고려해 실거주 목적이라면 입지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장기적 관점으로 매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사업 속도와 추가 분담금, 지위 양도 같은 거래 규제, 세금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한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엔 공사비 인상 변수와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 넷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와 상생 임대인 제도 변화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는 향후 전세 가격과 매물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지방 시장은 공급보다 인구와 일자리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공급 감소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세금과 금리, 전세 수급과 주택공급’이 서로 얽힌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보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팀장



2026 연말정산 중간 점검 가이드

절세는 자산관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절세 방법이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이 연말정산을 위한 점검 타이밍이다.

Writer_ 김희경(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_ 프리픽



많은 직장인이 12월이 되어서야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만, 사실 7~8월 여름휴가 시즌에 승부를 봐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가 쓴 돈을 점검하고, 하반기 소비 계획을 다시 짜야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세테크 전략을 리셋해보자.

교육비 세액공제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만 집중되던 혜택이 올해부터는 체감 교육비 절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①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올해부터 부모가 공제 적용 가능

기존에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제한에 걸려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원래 나이 제한은 없었지만, 이 소득 문턱 때문에 공제를 놓치는 부모가 많았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이후 지출분부터는 자녀의 소득 요건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다. 이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꽤 많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했다면 문제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1월 이후 지출한 등록금이 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위해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미리 구비해놓아야 한다.

② 초·중·고 2학년까지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취학 전 아동)까지만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했다.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초·중·고 학생을 위해 지출하는 학원비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음악, 미술, 무용)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나이 요건 상향 조정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 이상에서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간다.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 자녀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6년	만 9세 이상
2027년	만 10세 이상
2028년	만 11세 이상
2029년	만 12세 이상
2030년	만 13세 이상

이는 10만원 상당의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하는 아동 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에 대해 현금성 지원인 아동 수당과 세제 지원인 자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제도의 연령 기준을 맞춘 것이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상	55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의 대원칙은 ‘내 총급여(연봉)의 25%’를 넘게 써야만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이 문턱을 넘었는지가 하반기 전략의 핵심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아래 내용들을 점검해보자.

① 상반기에 25%를 채웠다면?

7월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15%) 사용을 중지하고,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30%) 위주로 사용해야 이득이다.

② 아직 25%를 못 채웠다면?

어차피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초반에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기준선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다가오는 7~8월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의 특강이나 학원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지, 그리고 하반기 학원비 결제는 누구 명의의 카드로 할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부모 중 ‘소득이 더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카드로 집중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다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규칙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2학년의 예능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연 300만원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다가오는 7~8월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의 특강이나 학원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지, 그리고 하반기 학원비 결제는 누구 명의의 카드로 할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부모 중 ‘소득이 더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카드로 집중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단연 유리하다.

- **초·중·고등학생** 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오직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어린 자녀나 가정이 없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액공제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① 연금계좌(IRP)등 연말 일시 납입하기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친 연금계좌다.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 12월 말에 부족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해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반기 지출이 많아 저축할 여력이 없었다면 하반기 성과급이나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에 집중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 **공제 한도 및 혜택** 연간 합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②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 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전달한 기부금 역시 하반기에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이다. 단순한 지출을 넘어 연말정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종교 단체나 일부 복지 단체의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하반기 중 해당 단체에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 설립 허가서 등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올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12월이 지나기 전 추가 기부를 통해 공제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공제 한도 및 혜택**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고액 기부 기준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율이 올라간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경우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어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



김희경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조사 바로 가기

Special Gift



테디베어 TB-BB072
여성용 보스톤백
그레이(2명)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7월 10일(금)~8월 28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 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 가기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313, 455, 510)
도곡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50, 540)
센트럴시티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T. 02-3482-6586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더트리니티 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잠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롯데월드타워 12층 T. 02-3213-0300(내선 210, 410)
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현대백화점 판교점 11층 T. 031-8016-9729(내선 311, 411)
송도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49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제1동 15층 T. 032-858-3692(내선 210, 212)
부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 4층 T. 051-741-3625(내선 213, 214)
대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13층 T. 053-746-6359(내선 311, 312)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W 청담

TWO CHAIRS Exclusive

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67(내선 3312, 3316)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3, 316)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4, 405)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종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 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TWO CHAIRS는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우리은행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우리은행 TWO CHAIRS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채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크 서비스,
해외 유학·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풀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929(2026.02.09~2027.02.08)